

01 공장·창고

가치를
잇는
건축자산
활용

(auri)

가치를 잇는 건축자산 활용

01 공장·창고

(a u r i)

들어가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문화자산센터는 건축자산의 건축적 특성과 보전가치를 바탕으로 미래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건축자산의 폭넓은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가치를 잇는 건축자산 활용」을 기획하였다.

「가치를 잇는 건축자산 활용」은 시리즈로서 그 첫 번째는 공간의 활용 가능성과 용도변경의 용이성 등의 이점이 있는 공장·창고의 보전·활용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별로 건축자산 발굴과정부터 기획·설계·시공의 전 과정에 걸쳐 건축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 구조적·기능적 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도면과 사진 등 풍부한 시각자료를 함께 구성하였다.

「가치를 잇는 건축자산 활용」의 주요독자는 건축자산 소유자 및 활용주체, 설계 및 시공분야 실무자, 건축자산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다. 이 책은 건축자산의 건축적 특성과 가치를 보전하면서 건축자산의 기획·설계·시공 상의 어려운 점을 해결한 사례들을 담고 있으며, 이는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는 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건축자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가치를 잇는 건축자산 활용

01 공장·창고

2015년 6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치 있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역의 정체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건축자산을 기반으로 한 정책과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노후화된 건축자산을 보전 및 활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아,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건축자산이 담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보전·활용하여 현재에 적합한 기능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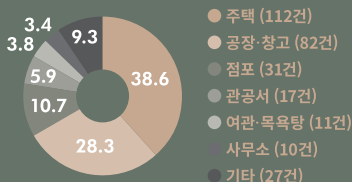
공장·창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

공장·창고인 건축자산을 활용한 사례 중 1) 건축자산의 활용계기, 2) 활용방법 및 기법 등 디자인적 가치, 3) 창업, 공동체 활성화 등 공간적 의미보전 혹은 증진, 4) 도면 등 자료구득의 용이성, 5) 건축주 또는 운영자의 협조여부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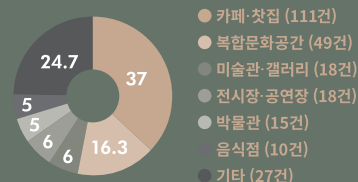
「가치를 잇는 건축자산 활용」의 첫 번째 시리즈인 공장·창고 편에서는,

❶ 100년 전 건립된 얼음창고의 기존 기능을 고려하여 지역역사와 문화를 아카이빙하는 공간으로 활용한 아카이브 카페 빙고, ❷ 마을사람들이 직접 돌을 쌓아 만든 마을 곡식창고를 문화생산의 공간으로 활용한 남해돌창고프로젝트, ❸ 막걸리양조장이 가지고 있는 술의 역사를 이어 맥주양조장으로 활용한 버드나무 브루어리, ❹ 주민들의 사랑방이었던 동네정미소의 가치를 이어 동네마실방이자 카페로 활용한 초당커피정미소의 사례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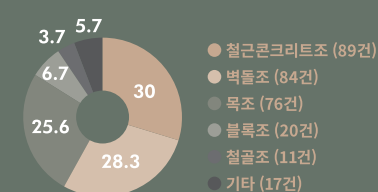
기존용도별 건축자산 활용사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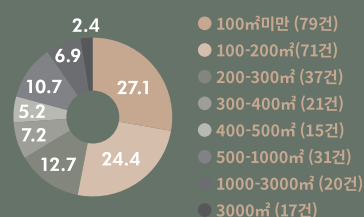
활용용도별 건축자산 활용사례 현황



구조별 건축자산 활용사례 현황



규모(연면적)별 건축자산 활용사례 현황



건축문화자산센터에서는 건축자산 소유주 및 활용주체, 건축설계 및 시공 실무자 등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다양한 보전·활용사례 300건을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문헌 및 건축물 대장 조사, 관련 기사 검색 등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건축자산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건축물 대장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건축자산 활용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기존용도는 주택 112건, 38.6%이었고, 그 다음은 공장·창고 82건, 28.3%, 점포 31건, 10.7%, 관공서 17건, 5.9% 순이었다. 주택은 단독·다가구·연립주택, 한옥·일식가옥 등 용도와 구조에 따라 다양한 공간적 특성이 존재하여 몇 가지 사례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반면, 공장·창고는 용도와 구조, 규모가 상이하더라도 층고가 높은 단일공간이라는 공통의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경우 1) 용도변경 시 허가절차 불필요, 2) 다양한 공간구획 가능, 3) 높은 층고를 활용하여 복층으로 구성할 경우 사용가능한 면적의 증가 등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에 「가치를 있는 건축자산 활용」의 첫 번째 시리즈로 ‘공장·창고’편을 기획하였다.

* 지역, 주소, 설립연도, 리모델링연도, 기존용도, 리모델링용도, 면적(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주 구조, 지붕, 소유주, 사업주체, 용도변경여부 등

목차

1 인천 아카이브 카페 빙고

01	넓은 공간을 재발견하다	016
02	공간을 더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 애쓰다	020
03	시간을 존중하다	024
04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지다	042

2 남해 돌창고 프로젝트

01	남해의 이야기를 잇다	052
02	공간의 활용에 대해 고민하다	056
03	HETEROTOPIA	060
04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다	088

3 강릉 버드나무 브루어리

01	과거의 역사를 잇다	094
02	실용적인 쓰임이 있도록 만들다	104
03	공간의 지속적인 쓰임을 고민하다	116
04	지역에 공간을 돌려주다	136

4 강릉 초당커피정미소

01	마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발견하다	144
02	공간이 담고 있는 이야기에 귀기울이다	147
03	공간을 보전·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다	148
04	초당을 담아내다	156

1

인천

아카이브 카페 빙고

Incheon Archive Cafe Bingo

- 01 넓은 공간을 재발견하다
- 02 공간을 더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 애쓰다
- 03 시간을 존중하다
- 04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지다

인천 차이나타운과 수인선 신포역 사이, 인천 중구청 주변에는 개항 이후 근대시기에 지어진 건축물에 들어선 박물관과 문화공간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 ‘아카이브 카페 빙고’는 그 중심에서 비켜선 곳, 개항기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인천 중구 신포동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다. 1920년대에 지어진 이 얼음창고는 건립 당시 마포나루터에서 왕복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려 가져온 귀한 얼음을 보관하던 장소로 사용되었다가, 주류창고, 인천시 교육청의 서고로 사용되었고 이후 근 10년 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

현재 이 건축물은 얼음창고氷庫가 자리를 지켜 온 100년의 시간을 존중하여 지역역사와 문화의 저장소인 ‘아카이브 카페 빙고Bingo’로 다시 문을 열었으며, 이곳을 찾는 이들의 추억을 가득 저장하고 있다.

인천 아카이브 카페 빙고

Incheon Archive Café Bingo

- 위치 인천시 중구 개항로 7-1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대지면적 56.5㎡
- 건축면적 46.28㎡
- 연면적 46.28㎡
- 층수 지상1층
- 구조 연와조
- 용도 얼음창고 → 카페



01

넓은 공간을
재발견하다

인천 차이나타운과 수인선 신포역 사이, 인천 중구청 주변에는 개항 이후 1900년대 초에 지어진 건축물을 활용한 박물관과 문화공간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아카이브 카페 빙고’는 그 중심에서 비쳐선 곳, 개항기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인천 중구 신포동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다. 1920년대 지어진 이 얼음창고는 건립 당시 마포나루터에서 왕복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려 가져온 귀한 얼음을 보관하던 장소로 사용되었다가, 주류창고, 인천시 교육청의 서고로 사용되었고 이후 근 10년 전까지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 이의중 대표는 건축물을 발견하고 매입하였던 당시에는 얼음창고로 쓰였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오래된 목욕탕 골목길을 오가는 어르신들의 무용담과 주변 이웃의 이야기에서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였다는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빙고氷庫라는 상호를 붙이게 되었다. 빙고를 오픈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일본의 NHK 다큐멘터리 방송을 촬영하였고 인터뷰 과정에서 옛날 마포나루의 얼음을 썰어 이 공간으로 실어 날랐었다는 이웃 어르신이 증인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옛 기능을 명확히 알게되었다.



© 이의중



© 이의중

1920년대에 지어진 얼음창고로 100년 간 그 용도를 달리하며 자리를 지켜온 건축물



나무와 벽들에 황토가 덧대어져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건축물의 내부

**‘건축재생’이란
오래된 건축물의
가치를 살려
후대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아카이브 카페 빙고의 이의중 대표는 건축재생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건축사와 전통마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일본 내 전통마을의 현황과 악을 위해 약 80여 개의 마을을 돌아본 결과, 정부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마을도 있었고 보존에만 초점이 맞춰져 마을 자체가 박제가 된 경우도 보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 대표는 자신이 실행하고 싶은 건축재생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였고, 이후 쿠라시키(倉敷)에서 고민가(古民家) 재생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무라 토오루(櫛村 徹)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국토교통성의 재생사업부터 마을의 작은 민가를 재생하는 사업까지 수십 건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귀국 후에는 연구소에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국내의 원도심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의중 대표는 인천에 연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의 건축자산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아 많은 원주민들이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점에 매료되어 인천을 선택하게 되었고, 2년 간 인천 곳곳을 다니며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였다.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매입할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 상권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소외된 지역 위주로 물색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지인의 도움으로 현재의 아카이브 카페 빙고를 소개받아 매입하게 되었다. 이 대표는 14평 정도의 작은 규모와 2m 높이의 화강암 석축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올려 만든 창고라는 점,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상이 묻어있는 골목 안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 건축물의 규모는 작지만 골목을 끼고 있어, 공유공간을 사유화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 대표는 이 건축물이 후대에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건축물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사용자의 현재 생활에 맞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생이고, 그래야만 다음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굳이 상호에 아카이브 카페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도 얼음창고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도면과 기록 등의 자료를 축적하면서 지역의 가치를 살려내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02

공간을 더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 애쓰다



목재가 비교적 양호하게 보
전된 우측벽(하단사진)의 목재
를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

얼음창고는 내부공간에 기둥 없이 목조트러스가 지붕을 받치고 있었으며, 외벽은 벽돌과 나무로 만든 전형적인 근대 창고건물이었다. 낡고 오래된 창고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쇠락한 골목 어귀에 자리하여 100여년간 얼음창고의 냉기를 유지하던 두터운 돌담과 목조 트러스구조가 드러난 천장, 쇠가 덧대어진 출입구를 원형에 가깝게 남겨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였다.



외부와 내부의 벽을 보전하기 위해 줄눈을 털어내고 벌어진 틈을 일일이 메우는 작업

기존 건축물의 부재를 최대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

이 대표가 처음 얼음창고를 방문했을 때 깊은 바닥에 숯과 소금이 많이 깔려있었고, 지붕은 목조트러스 위 슬레이트로 덮여 있었으며 벽은 나무와 벽돌에 황토가 덧대어져 있었다. 황토를 발라 쌓아올린 벽돌은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웠고, 목조트러스와 기둥도 반은 썩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벽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황토를 조금씩 제거해 다른 재료로 채웠고, 목부재와 지붕도 하나하나 살펴가며 교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출입구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정도로 낮아 높이를 15cm 높였고, 녹이 쓴 기존 철문은 철거 후 동일한 형태로 제작하였다.



1.7m 높이의 출입구를 0.15m 높이고 기존 철문(좌)과 동일한 형태로 제작(우)



© 이의중



© 이의중

기존 건축물의 부재를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

03

시간을 존중하다

이의중 대표는 일본에서 수행한 문화재 및 전통마을 보전 관련 연구와 오래된 목조건축물 재생 관련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창고의 리모델링 계획부터 시공까지의 전과정을 진행하였다. 설계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목재의 기성품이 없어 강원도에서 직접 제재하여 공수하였다. 이를 정교하게 시공할 수 있는 목수를 찾는 것이 어려워, 시공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시공의 기간과 비용이 초기 계획한 것보다 많이 소요되었다.

아카이브 카페 빙고는 구조적인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조적 벽체와 목재트러스 접합부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목재기둥으로 보강하였다. 또한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기와로 시공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기와무게로 목재트러스의 변형이 우려되어 징크패널로 시공하였다. 이의중 대표는 개당 280kg의 견고한 돌들을 사용해 기초를 다시 만들면서 외관은 옛 모습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여 다음 세대에서도 이 공간을 통해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매입부터 리모델링 공사까지 총 7,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그 중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기금으로 공사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조적벽체와 목재트러스 접합부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목재기둥으로 보강



야간에 골목길에서 바라본 아카이브 카페 빙고의 전경



복층으로 리모델링된 아카이브 카페 빙고 내부 전경



아카이브 카페 빙고의 1층 카페 공간과 주방, 2층 작업실의 모습



아카이브 카페 빙고 내부에서 바라본 주출입구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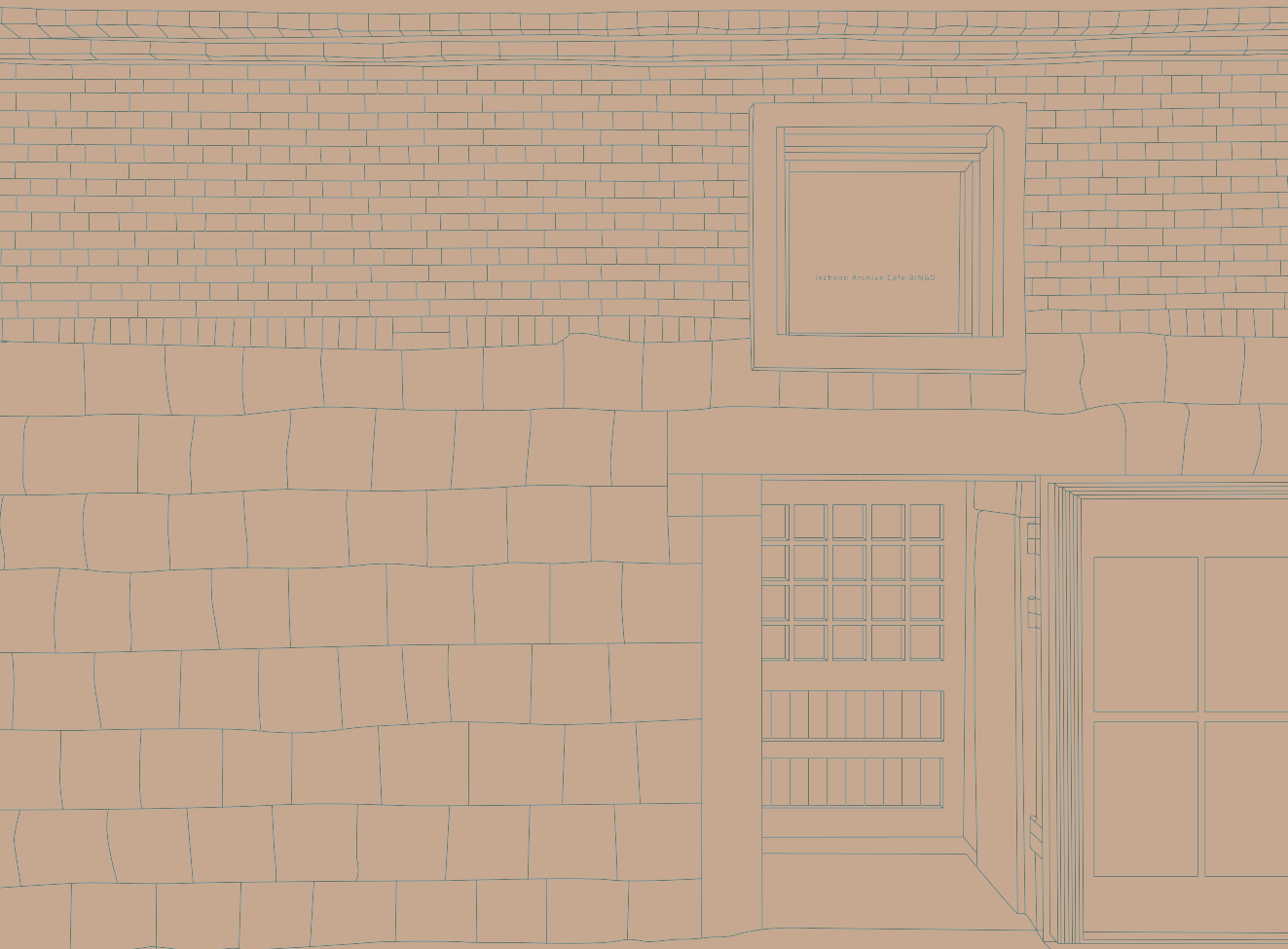


주출입구에서 바라본 아카이브 카페 빙고의 내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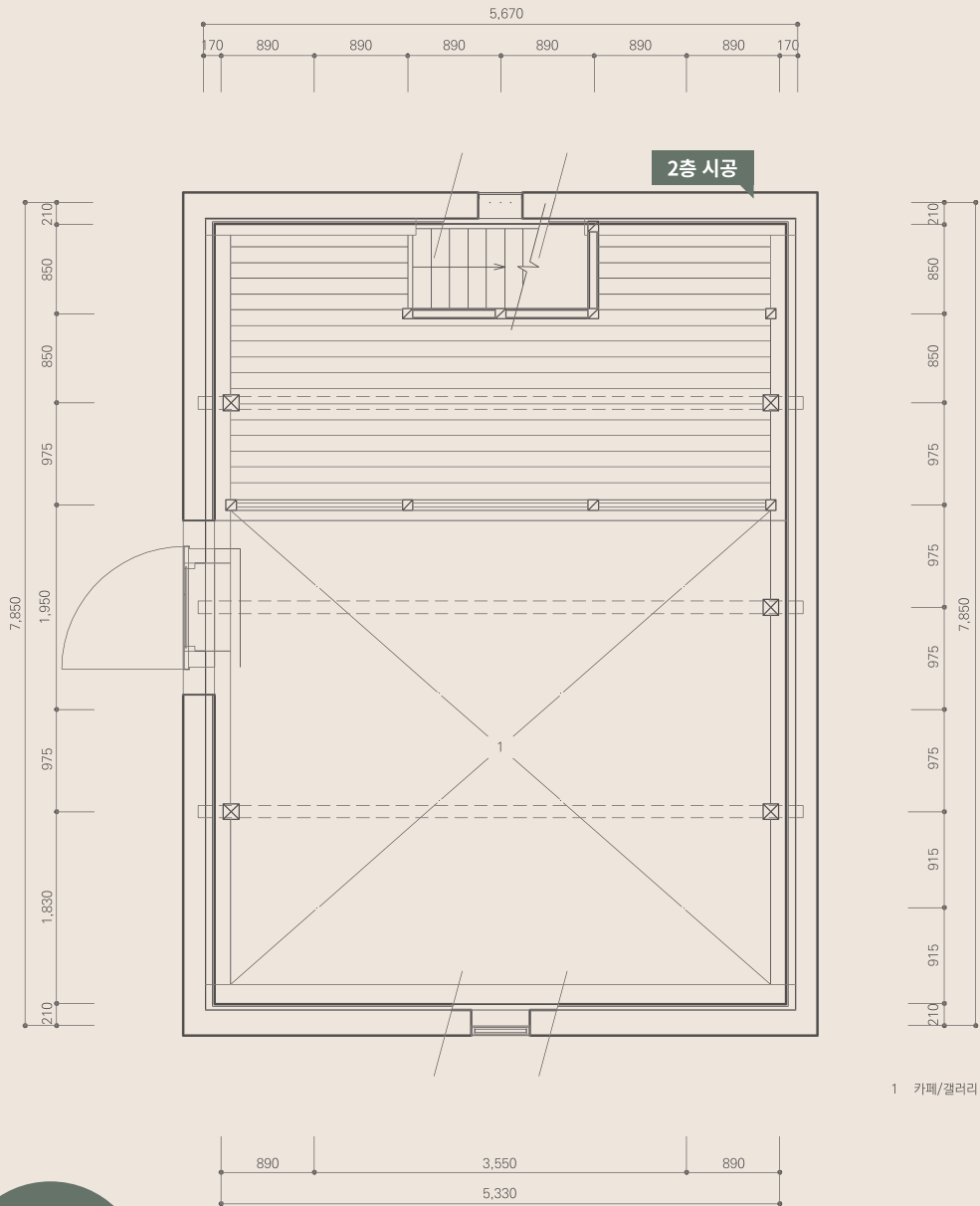
도시가 번영했다 쇠퇴하는 과정에서
버려진 공간들이 재생되면
도시가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남아있는 건축자산을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지역 전체가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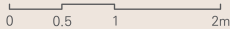
2018.04.17.
이의중 대표 인터뷰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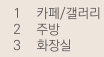
아카이브 카페 빙고의 2층 평면도



높은
층고를 활용,
복층으로 계획하여
사용 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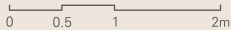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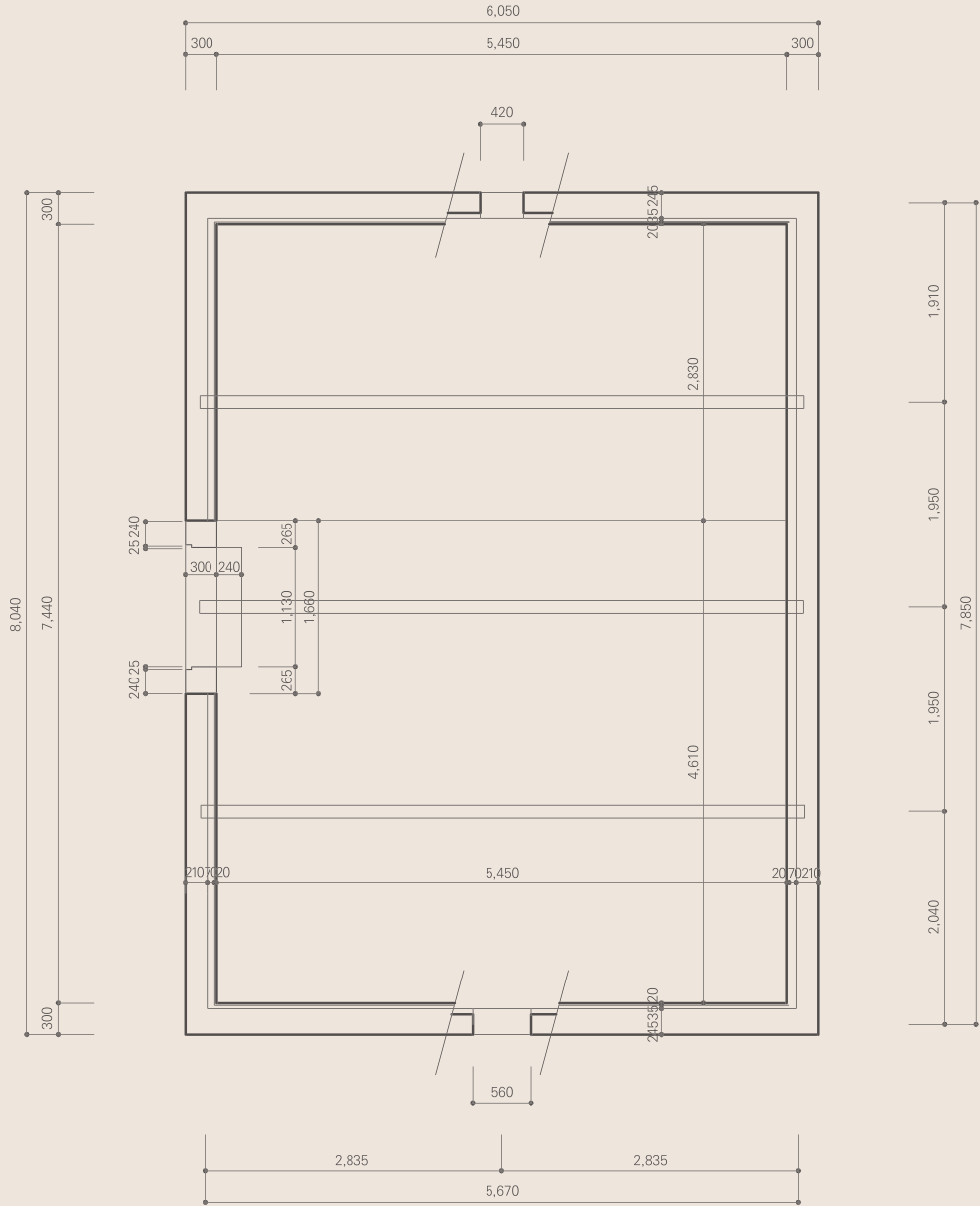


A diagram showing a circle with a center point. A line segment, representing a radius, extends from the center to the circumference and is labeled with the variable 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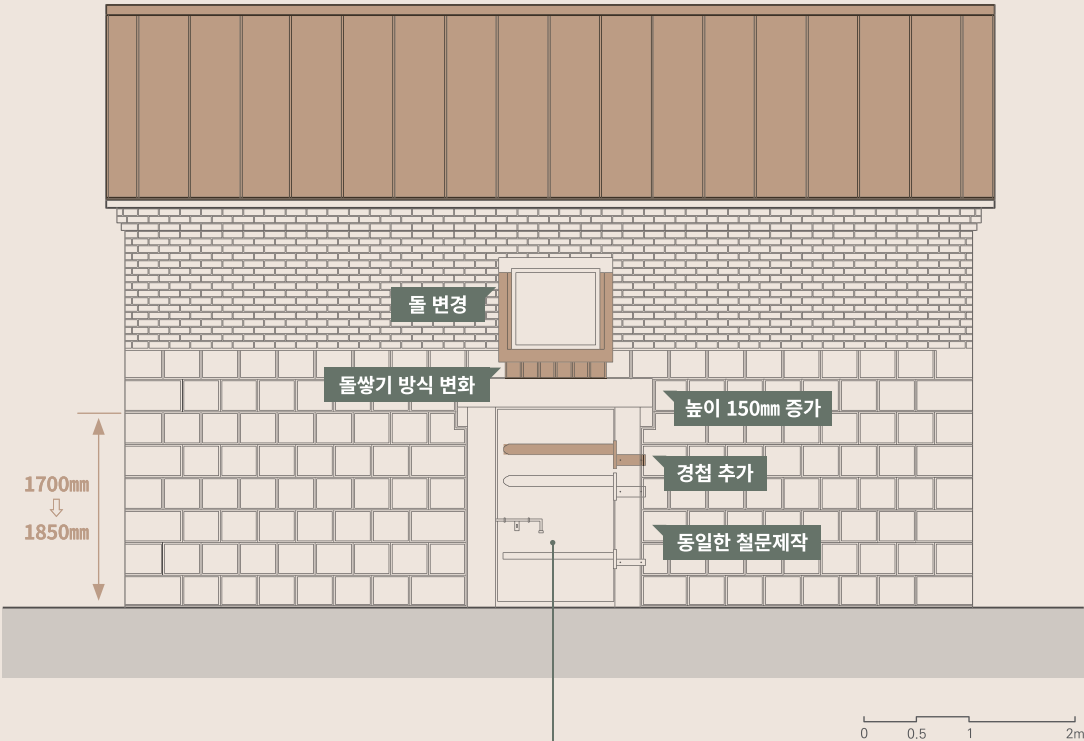
A horizontal number line is shown with tick marks at 0, 0.5, 1, and 2m. A bracket is drawn above the line, spanning from the tick mark at 0.5 to the tick mark at 1.

기존 얼음창고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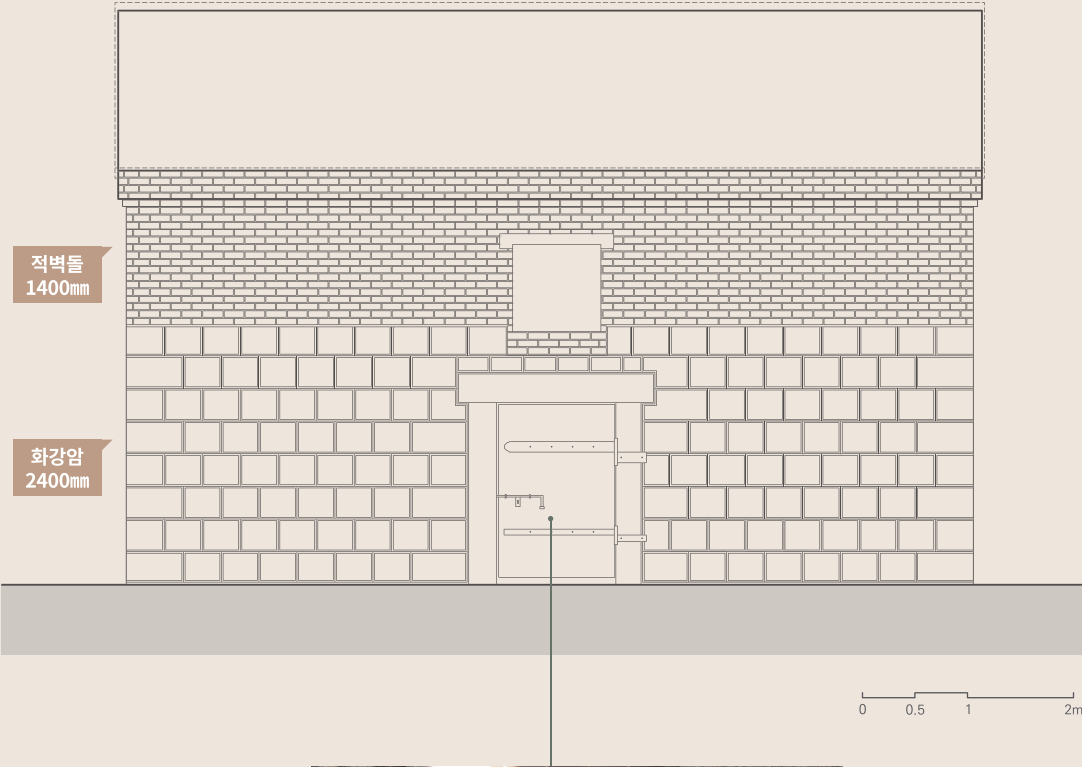
아카이브 카페 빙고의
정면도

구조를
고려하여
징크패널로
지붕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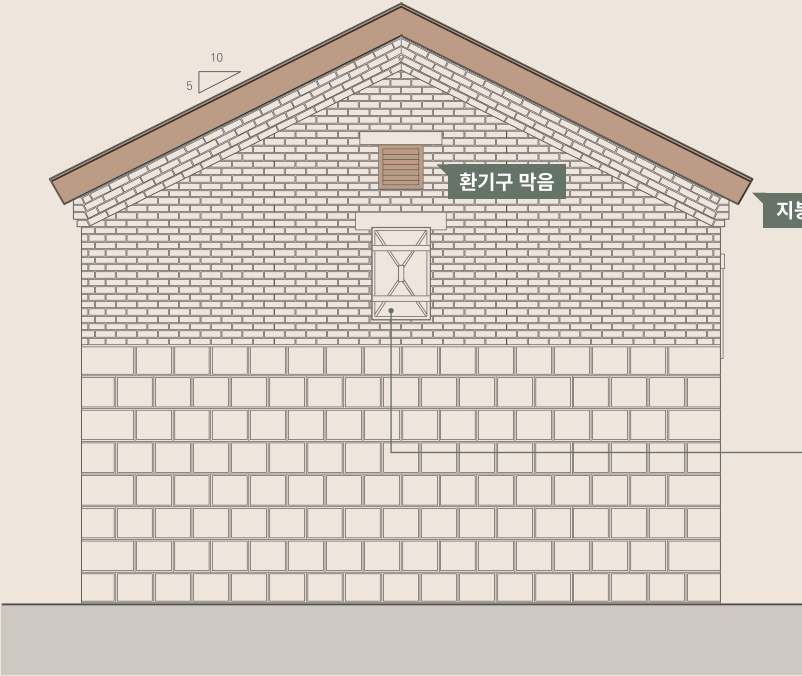
카페로의 활용을 위해 15cm 높인 현재 출입구 모습

기존 얼음창고의
정면도



리모델링 전 주출입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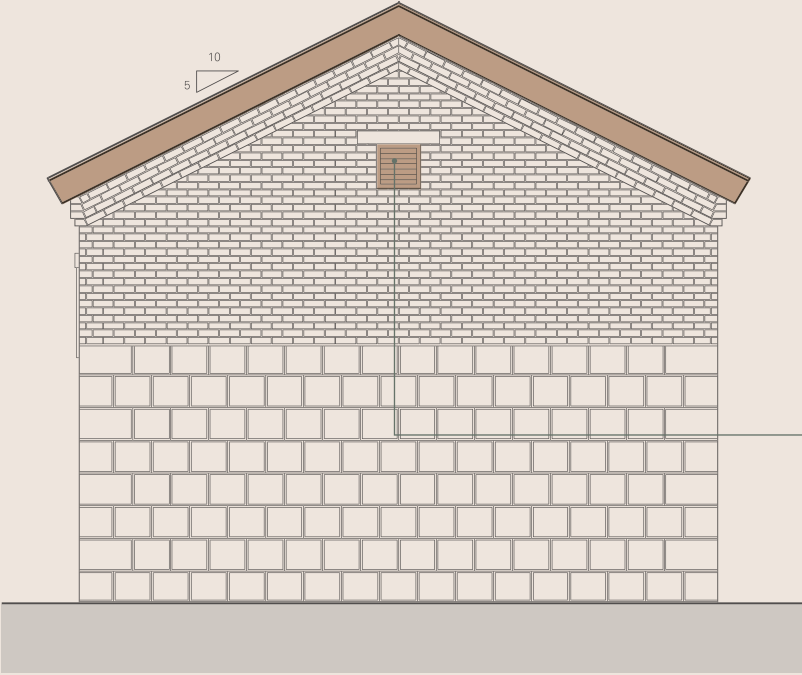
아카이브 카페 빙고의
우측면도



기존 창살모양과
동일한 형태로 제작

0 0.5 1 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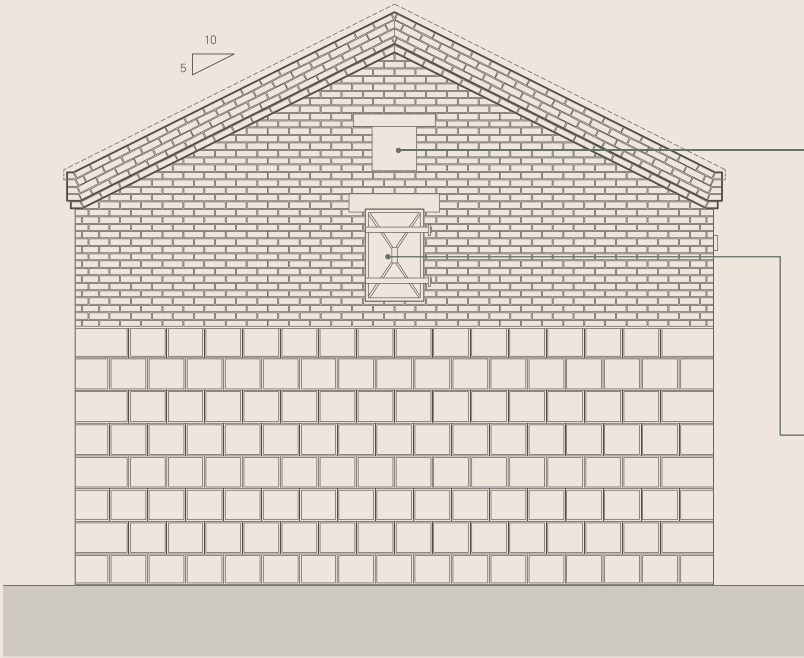
좌측면도



환풍기 설치

0 0.5 1 2m

기존 얼음창고의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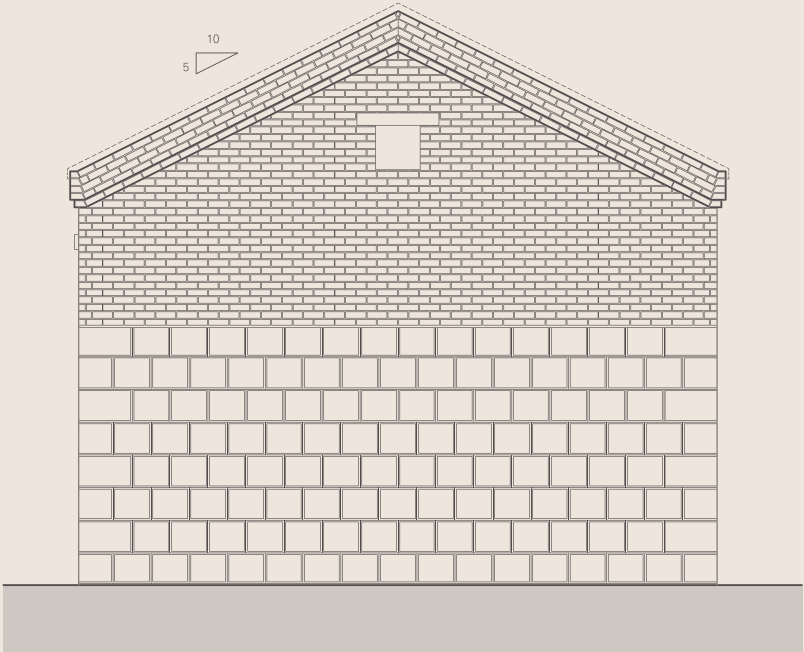
창살만 녹슨 채 남아있어
임의로 막아놔던 창문



낡고 녹슬어 방치된 창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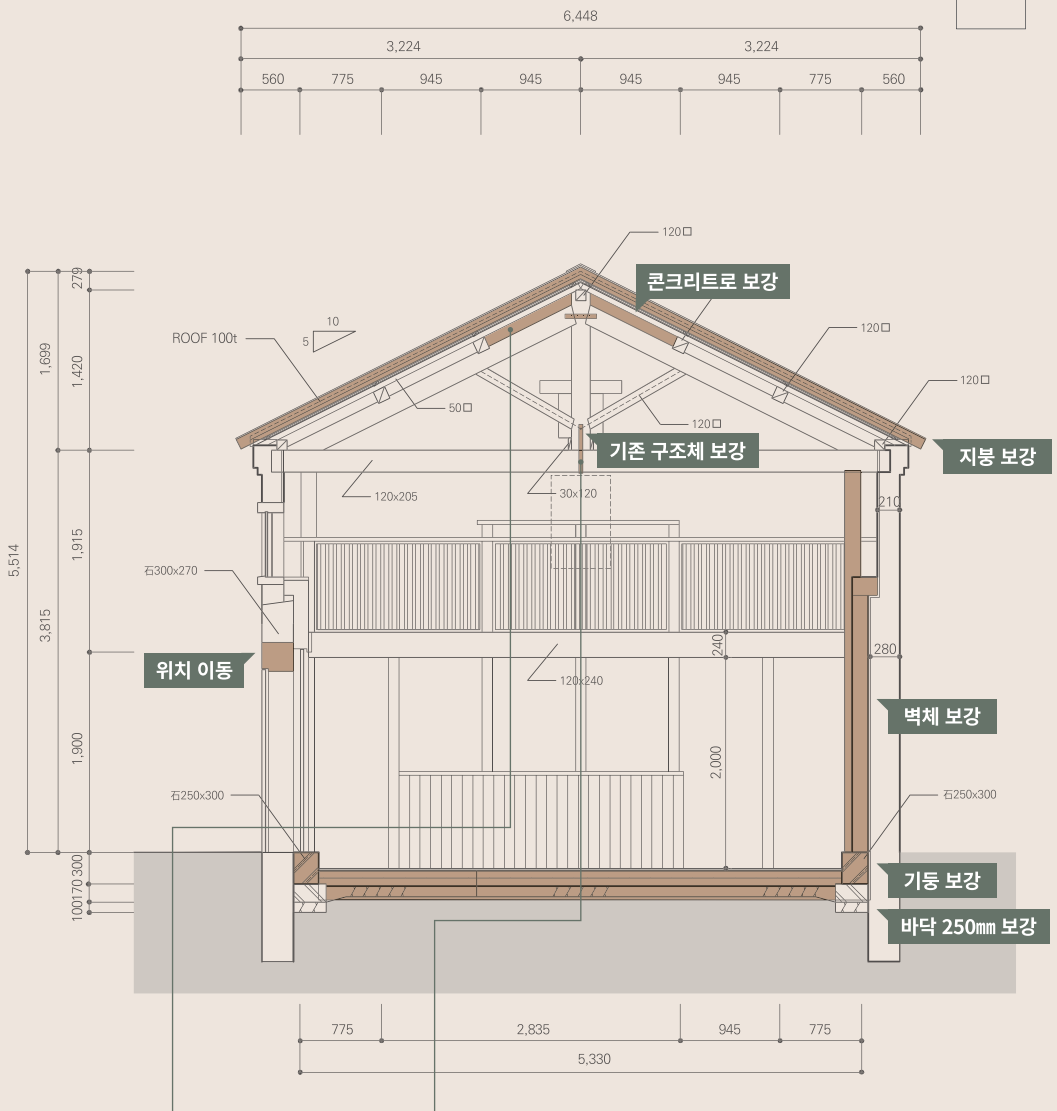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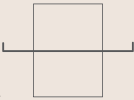
0 0.5 1 2m

좌측면도



0 0.5 1 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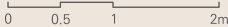
아카이브 카페 빙고의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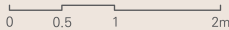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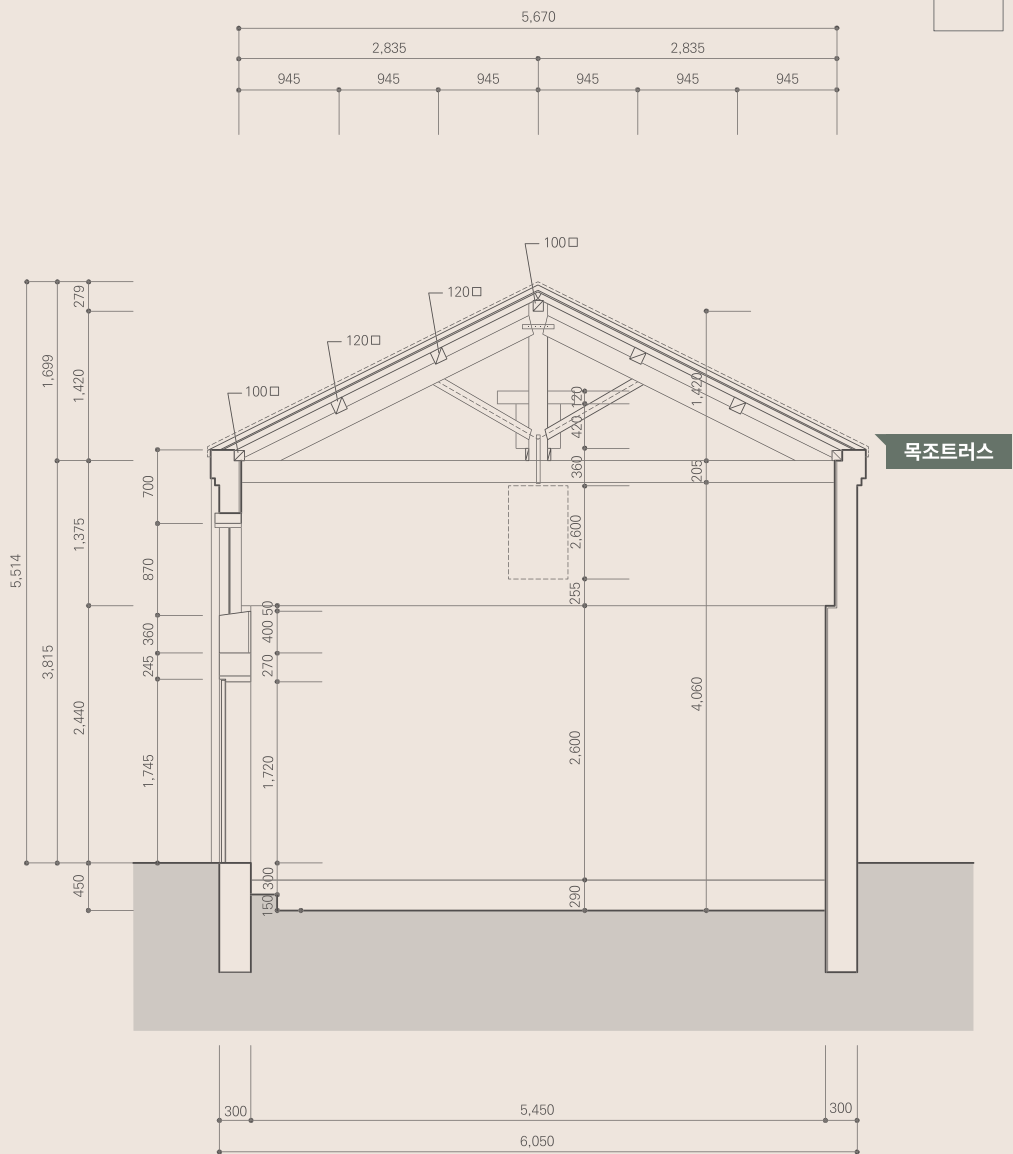
벽과 지붕 사이를 콘크리트로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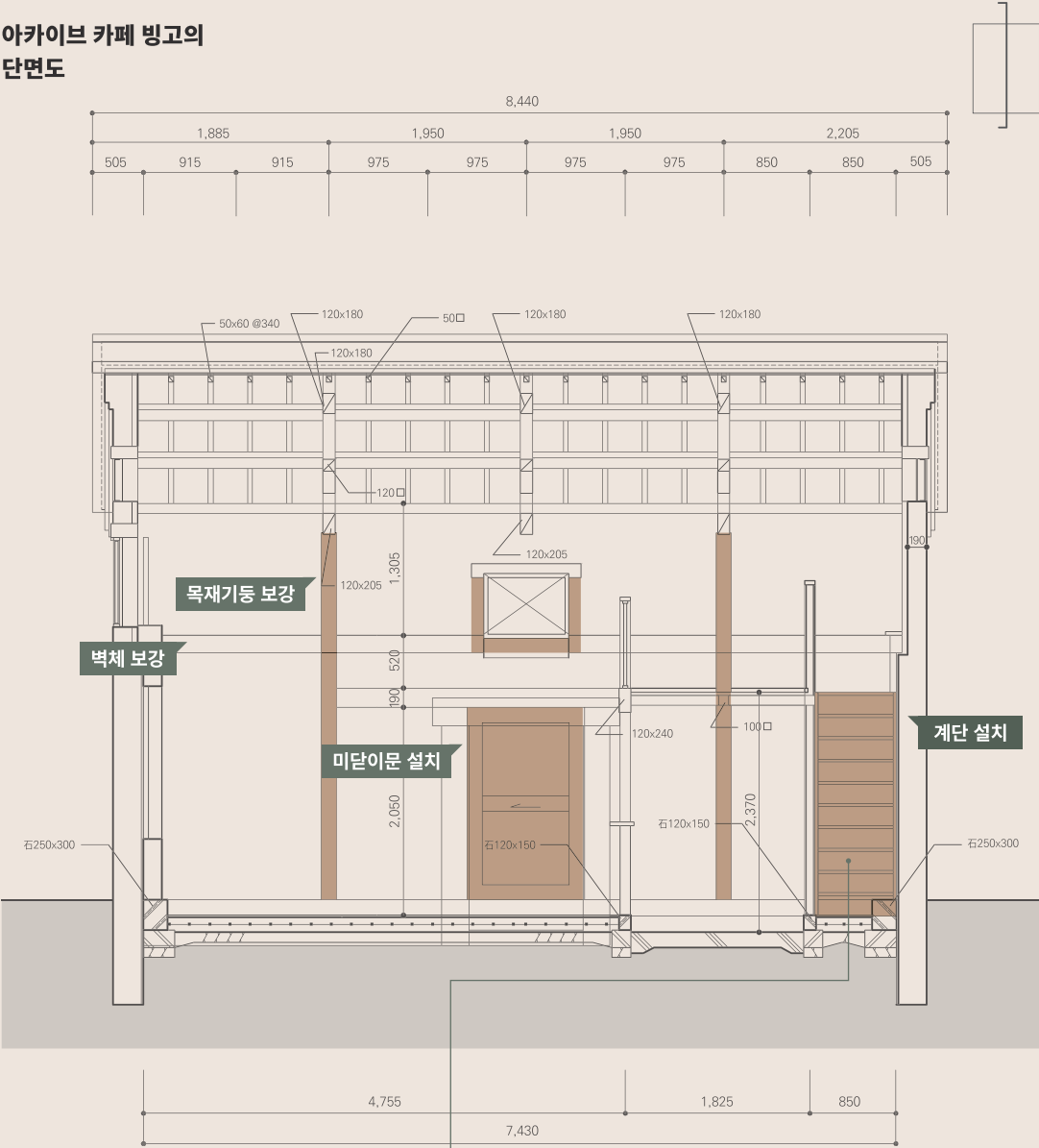
기존 구조체에 긴결철물 보강



기존 얼음창고의 단면도



아카이브 카페 빙고의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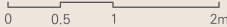


기존 기둥을 그대로 돌려싸서 벽체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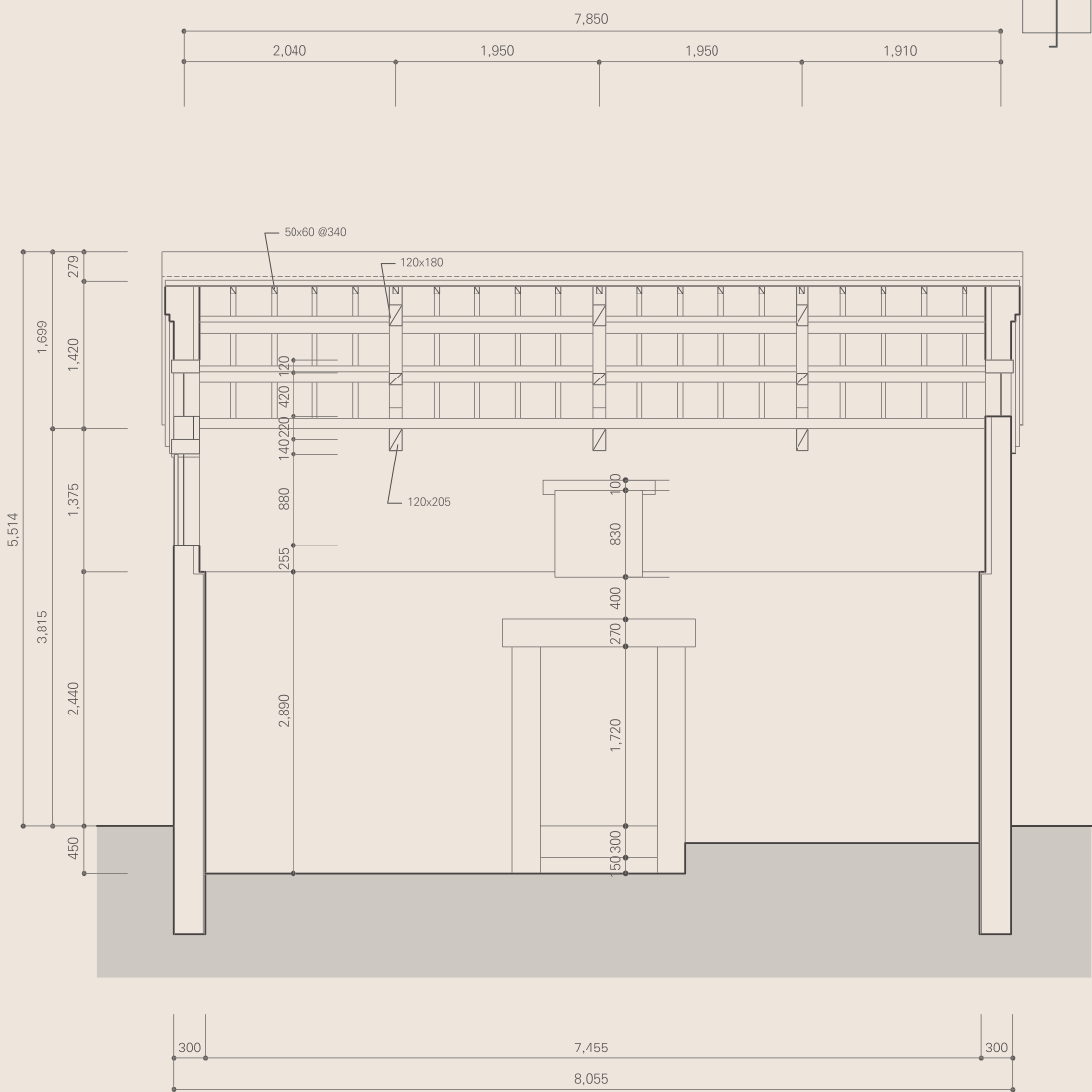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설치

바닥, 벽체,
기둥, 지붕 등
구조체 보강



기존 얼음창고의
단면도



04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지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의 모습과 계단 옆에 드러난 얼음창고의 벽면

2015년, 100년 된 얼음창고는 아카이브 카페 빙고로 재탄생되었다. 1층은 카페로 활용하고 2층 다락방은 이의중 대표의 건축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빙고에서 사운드바운드라는 이름의 동네 음악축제가 열리면서, 조용하고 정적이었던 공간에서 조명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클럽으로 변신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의중 대표는 빙고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때부터 2층 공간도 때때로 카페손님들에게 내어주게 되었다.

이 대표는 처음 얼음창고를 발견했을 때부터 골목을 마을에서 공유하여 활용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고민하였다. 실제 아카이브 카페 빙고에서 골목길 탁구대회와 인디밴드와 함께 하는 동네음악축제인 사운드바운드 행사, 일본 NHK 다큐멘터리 팀의 인터뷰 등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카페 입구와 1층 한 켠에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공간



이의중 대표의 건축작업실로 사용 중인 2층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아카이빙하는 공간

최근 이 대표는 인천 중구청 일대의 오래된 공간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 1965년에 지어진 여관건물을 음악레이블인 루비레코드와 함께 인천여관x루비살롱으로 재생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었고, 1930년대 지어진 벽돌창고를 인천영상위원회 커뮤니티공간으로 재생하였으며, 1910년대에 지어져 차이나타운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인 화교협회 회의청을 전시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작업을 인천대학교의 의뢰로 진행하였다.

한편, 아카이브 카페 빙고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나면, 아카이브 카페 빙고를 지역기반 코워킹스페이스 등으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건축 전공자나 공간·콘텐츠 기획자 등과 함께 지역의 건축자산을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등 지역 기반의 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

이의중 대표는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재적 관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별로 다양한 모델이 제안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카이브 카페 빙고에서의 아카이브는 ‘저장소’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이름에 동인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아카이빙하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 포부를 담았다. 버려진 채 방치되었던 얼음창고는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되어 찾는 이들의 추억을 가득 저장해가고 있다.

이의중 대표는 아카이브 카페 빙고가 건축자산의 가치를 스스로 재조명하고 그들의 기억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천여관 X 루비살롱



인천영상위원회 커뮤니티 공간

2

남해 돌창고프로젝트

Namhae Dolchanggo Project

- 01 남해의 이야기를 잇다
- 02 공간의 활용에 대해 고민하다
- 03 HETEROTOPIA
- 04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다

과거 섬이었던 남해에는 육지와와의 교역이 불편하여 시멘트, 벽돌, 철근과 같은 건축자재가 부족했다. 그래서 석공이 산에서 튼튼한 청돌을 큐브형으로 다듬어 깨주면 마을 사람들이 한두 덩어리씩 지게에 지고 내려와 쌓아올려 돌창고를 만들었다.

50년을 버텨온 남해의 돌창고들은 주민들이 직접 돌을 운반하여 만든 창고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미가 있는 건축물이다. 오늘날 남해의 돌창고는 단순히 건축물의 보전차원을 넘어 남해지역의 ‘결핍된 기능’을 채워 새로운 이야기를 생산하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남해 돌창고 프로젝트

대정돌창고 Daejeong Dolchanggo

Namhae Dolchanggo Project

- 위치 경남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 487
-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 대지면적 275㎡
- 건축면적 148.76㎡
- 연면적 148.76㎡ → 187.57㎡
- 층수 지상1층 → 지상2층
- 구조 석조 → 석조보강, 철골조신설
- 용도 창고시설 → 문화시설





남해 돌창고 프로젝트

시문돌창고 Simon Dolchanggo

Namhae Dolchanggo Project

- 위치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538-1
-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 대지면적 226㎡
- 건축면적 109.07㎡
- 연면적 109.07㎡
- 층수 지상1층
- 구조 석조
- 용도 창고시설 → 문화시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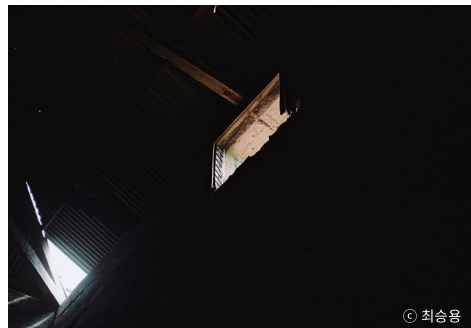
남해의
이야기를
잇다

남해의 돌창고는 마을의 양곡과 비료를 저장하기 위해 마을단위 농업 협동조합에서 만든 창고이다. 시문돌창고가 위치한 시문마을은 남해의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이 교차하는 접점에 위치해 있으며, 남해읍과 인근의 영지, 갈현, 읍지, 고암, 수곡마을을 연결해주는 대로변 초입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이 돌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해왔다. 남해가 섬이었던 1920년대에 대정돌창고가 건축되어 1965년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으며, 1967년에는 시문돌창고가 건축되었다. 돌창고가 건립되었던 당시에는 육지와와의 교역이 불편하여 시멘트, 벽돌, 철근과 같은 건축자재가 부족했다. 그래서 석공이 산에서 튼튼한 청돌을 큐브형으로 다듬어 깨주면 마을 사람들이 한두 덩어리씩 지게에 지고 내려온 돌들을 쌓아올려 창고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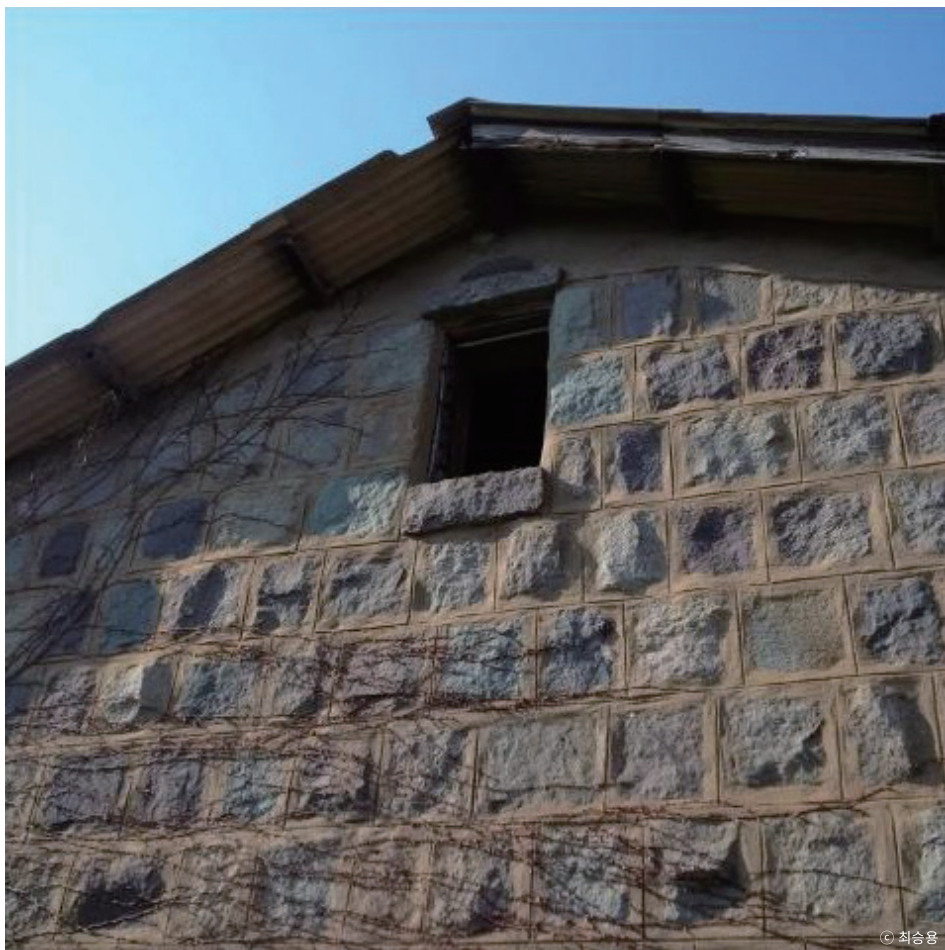


대정돌창고 리모델링 이전 모습

남해군에 건립된 약 30개의 농협창고 중 대표적인 석조 창고로, 정면에만 아치형의 출입문이 있고 좌우측에는 고창이 설치되었으며 지붕 바로 아래에는 내어쌓기로 석조 돌림띠를 둘러 안정감을 주는 구조임



사고석 쌓기의 외벽과 트러스 구조의 우진각 슬레이트 지붕



푸른빛을 띠는 남해의 청돌로 만들어진 시문돌창고

남해의 결집된 기능을 채워 남해의 이야기를 잇다

이렇게 50년을 버텨온 남해의 돌창고들은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따라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우연히 돌창고의 가치를 발견한 최승용·김영호 대표에 의해 변화가 시작되었다. 남해 주민들이 직접 돌을 운반하여 돌창고를 지었고, 그곳에 양곡과 비료를 저장하며 삶을 살아간 이야기와 공동체의 기억을 축적하는 등 남해 돌창고는 지역주민들에게 의미가 있는 건축자산이다. 이러한 의미와 함께 남해돌창고는 독특한 자연석으로 지어져 50년을 버텨온 구조적인 견고함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형태를 온전히 보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두 대표는 이러한 남해돌창고의 특징들을 현대적으로 변해버린 주변 풍경과의 부조화 속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보여지는 요소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두 대표는 남해돌창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단순히 건축물의 보전을 넘어 남해지역의 ‘결집된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새로운 이야기를 생산하는 장소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승용·김영호 대표가 이 공간을 기획하면서의 고민은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였고,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의 삶’이었다. 이러한 고민의 해결책으로서 남해라는 시골에서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활동과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문화인프라 구축’과 ‘경제활동’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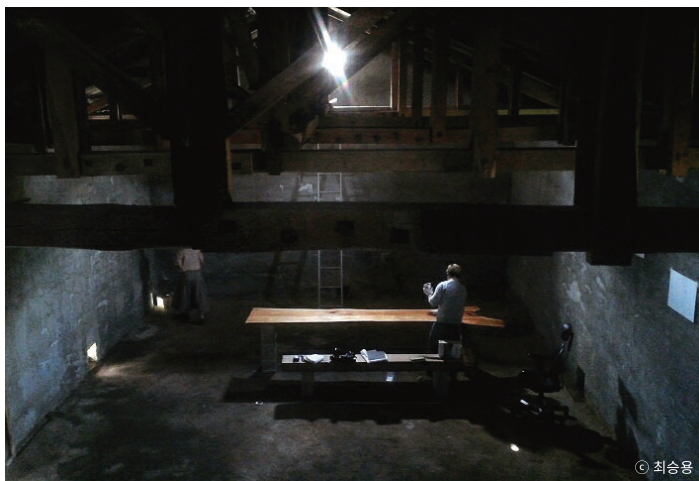
02

공간의 활용에 대해 고민하다

최승용·김영호 대표는 대정돌창고를 활용하기 위해 돌창고의 가치를 공감하고 이를 고려한 리모델링 계획을 해 줄 수 있는 건축가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WISE Architecture의 장영철 소장을 만나게 되었고, 돌창고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이후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다. 장영철 소장은 두 대표에게 1년 동안 건축행위는 하지 말고 돌창고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공간을 관찰하라는 조언을 하였다. 최승용·김영호 대표는 1년간 돌창고를 청소하고 머무르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변화를 관찰하고, 돌창고를 찾은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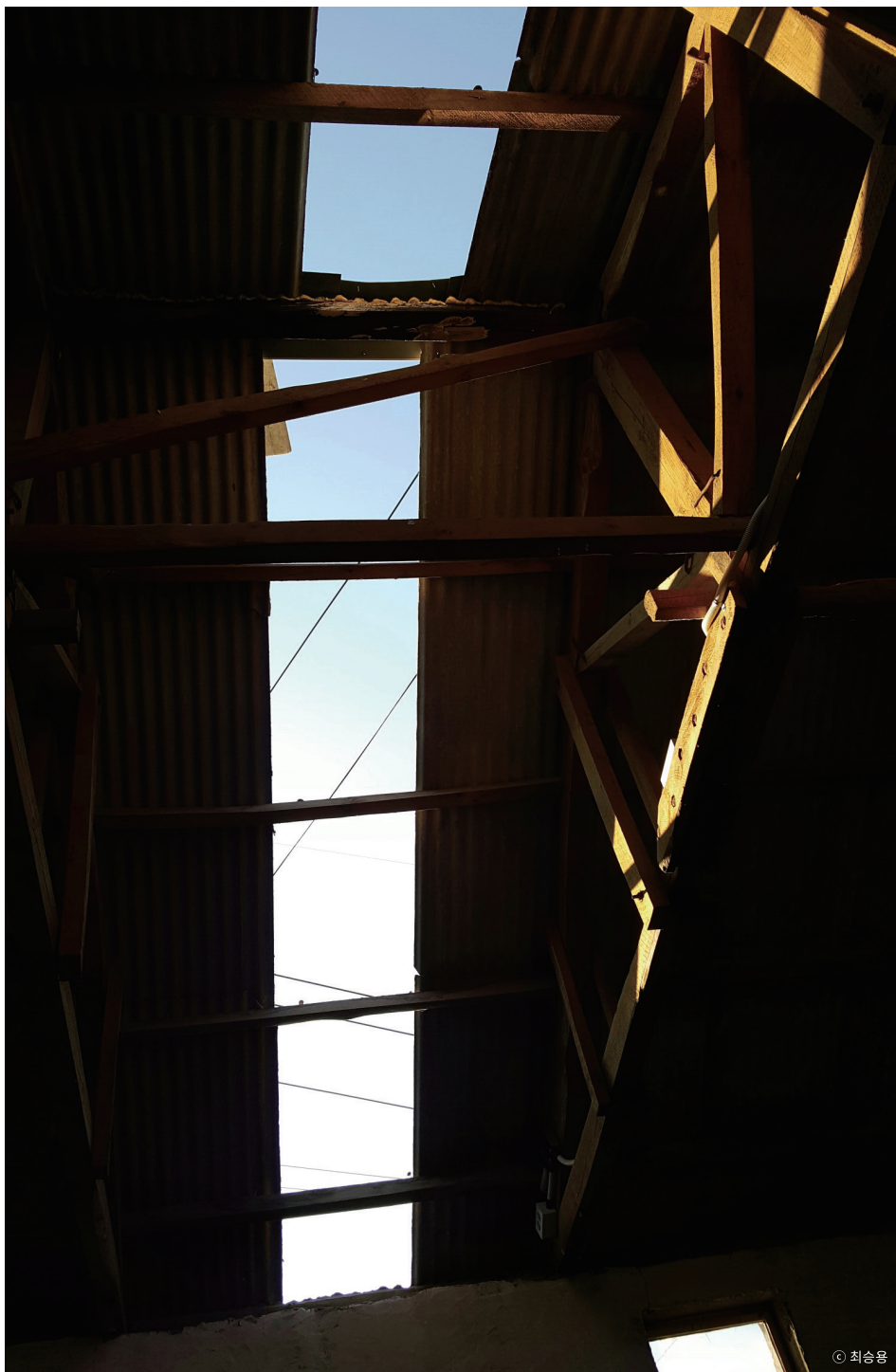


© 최승용



© 최승용

1년 동안 공간을 관찰하면서 공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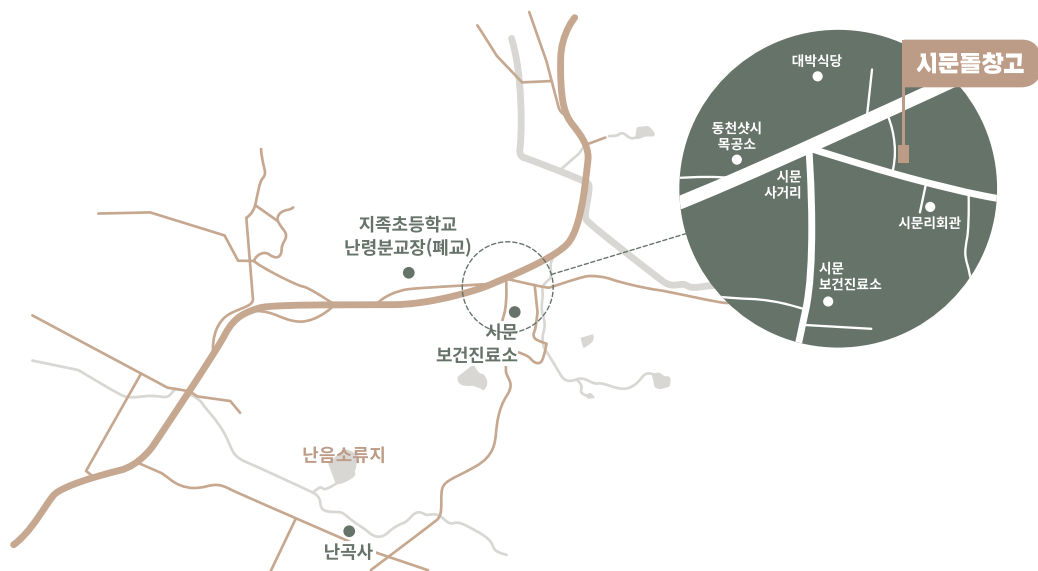
© 최승용

누수로 인한 슬레이트 지붕 일부 철거 후 교체 시문물참고

공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1년간 공간을 관찰

2016년 7월 두 대표는 시문돌창고를 Art Museum으로 재생하고 시문돌창고와 나란히 위치해 있던 농산물 창고는 Café와 Artist Residence로 계획하였다. 폐품창고로 사용되었던 시문돌창고는 지붕을 제외하면 큰 수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였다. 다만 지붕누수와 함께 연접도로의 레벨이 높아지면서 창고바닥에 있는 통기구멍으로 빗물이 들어와 물이 차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고 주변에 배수로를 파고 슬레이트 지붕 일부를 교체하였다. 또한 돌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붕 슬레이트와 외벽 사이에 나무를 고정시켜 외부조명을 설치하였고, 기존의 창문을 분리하고 유리만 새로 교체하였다.

한편, 설치미술을 몇 차례 전시했던 대정돌창고는 2017년부터 만드는 사람Maker과 디자인하는 사람Designer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기획되었다. 돌창고를 관찰한 1년간의 과정을 장영철 소장과 논의한 후, 돌창고의 외관은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대정돌창고는 1층에 가스 가마와 물레 등 도자기 제작을 위한 장비를 갖춘 작업공간과 작은 회의실, 화장실, 실내정원,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으로 계획하였고, 2층은 1층에서 생산한 도자기 등 물품들을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개층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벽체에 H빔을 설치하여 구조보강을 하였고, 1, 2층과 전망대를 연결하는 계단실을 설치하였다.



03

HETEROTOPIA

시문돌창고는 지붕교체, 바닥 에폭시 시공을 제외하고는 거의 원형 그대로 보전하였고, 대정돌창고는 2층과 옥탑을 일부 증축하였다. 대정돌창고 리모델링의 시작은 바닥 기초의 터파기 공사였다. 돌창고는 오래된 건축물이라 바닥의 기초가 튼튼하게 시공되지 않았을거라 생각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마감에 강돌을 넣고 미장하여 커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예상 밖으로 바닥 밑의 기초는 50cm 두께로 튼튼하게 시공되어 있었다. 많은 노고와 정성이 들어간 마을의 중요한 창고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대정돌창고를 2개층으로 활용하기 위해 뚫린 지붕으로 H빔을 세워 구조적으로 보강하였다. 또한 지붕트러스를 보강하고 지붕에 OSB합판을 설치한 후 방수시트를 시공하였다. 1층 전시공간의 빛 유입을 위해 2층 바닥 모퉁이를 보이드void공간으로 설계한 후 강화유리로 시공하였다. 지붕은 양철 골강판으로 마감하고, 내부 천장은 미송합판을 커서 마감하였다.

인·허가 과정은 용이한 행정처리를 위해 지역건축사를 고용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건축사와의 의견조율과 설계비 이중지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계단실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작업



뿔린 지붕으로 H빔을 반입, 시공하여 구조적으로 보강



계단실 설치 및 지붕공사



시문돌창고

Simon DolChangGo

- 2016.04.10. 창고 옆 배수로 파기
- 2016.05.01. 돌창고 앞 잔디식재
- 2016.06.10. 외부조명 설치
(돌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붕과 외벽 사이에 나무를 고정시켜 설치)
- 2016.11.01. 슬레이트 지붕 교체작업(일부)
- 2017.12.20. 바닥 에폭시 시공

대정돌창고

Daejeong DolChangGo

- 2017.05.12. 지붕철거
- 2017.05.18. 비계설치, 터파기 정리
(상수연결과 하수처리를 위한 위치선정 협의)
- 2017.05.23. 기초배근
- 2017.06.20. 바닥콘크리트 포장
- 2017.07.05. 벽체 상부 평활작업
- 2017.07.11. 계단실이 들어가는 곳에 지붕트러스 일부 철거 후 크레인
으로 H빔을 반입하여 설치
- 2017.07.13. H빔 기둥 및 골조작업
- 2017.07.20. 상부트러스와 스테인리스 계단판 용접조립, 복층바닥 설
치를 위한 강관용접
- 2017.07.22. 계단난간 조립
- 2017.07.25. 2층 바닥장선 작업(시공 중 설계변경), 처마마감작업
- 2017.07.30. 지붕의 단열과 마감을 위한 트러스 보강
- 2017.08.02. 지붕트러스 보강 및 처마작업(철용접으로 조립)
- 2017.08.04. 지붕에 OSB합판을 설치한 후 방수시트 작업, 2층 바닥에
OSB 합판작업
- 2017.08.06. 전망대 바닥 그레이팅에 레진 1차 충전작업, 실내지붕에
단열재 공사
- 2017.08.08. 복층바닥 단열재 삽입 및 휴게실 칸막이 공사, 전기레일
등 설치 후 석고보드 설치
- 2017.08.16. 지붕단열재 충전 후 실내지붕 OSB합판 마감

**과거의
공간이지만
현재와 섞인
공간,
실재공간이면서
실재하지 않는
공간**

남해 돌창고 프로젝트의 컨셉은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로 소설적 공간이자 현실적인 동시에 신화적인 공간 즉, 과거의 공간이지만 현재와 섞여있고 실재공간이면서 실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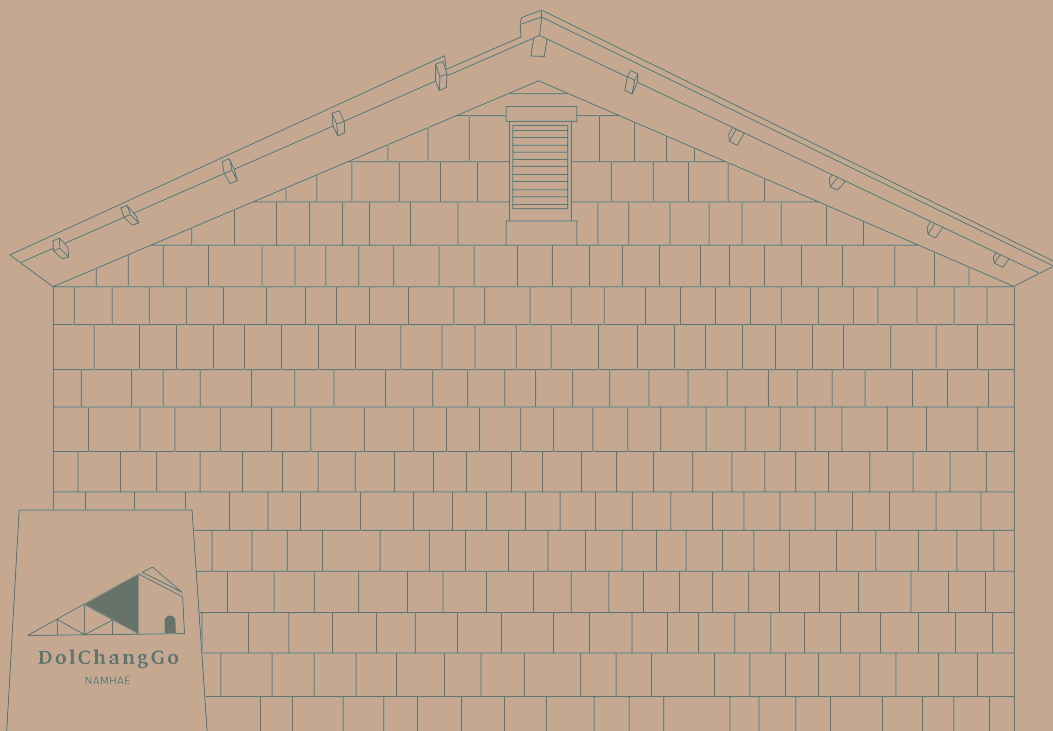
전망대에서 바라본 마을의 풍경

남해돌창고프로젝트는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며,
지속적으로 공간의 기능과 변화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

2018.07.26.

최승용·김영호 대표 인터뷰 中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문돌창고



대정돌창고 전경



대정돌창고 1층의 도자기 공방



대정돌창고 2층의 전시공간 및 판매공간





대정돌창고 2층의 천창과 부재들



대정돌창고의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단실



대정돌창고의 계단실에서 올려다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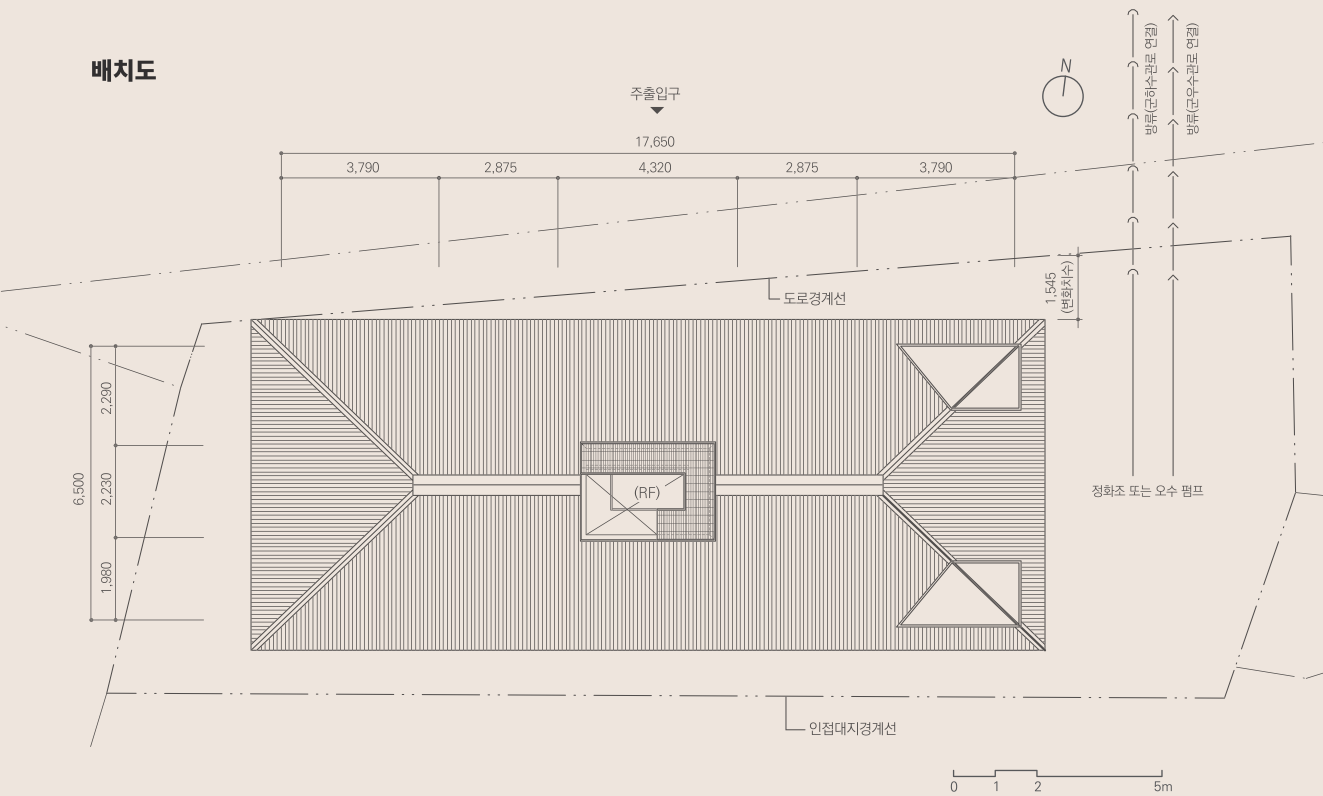


작은정원이 있는 대정돌창고의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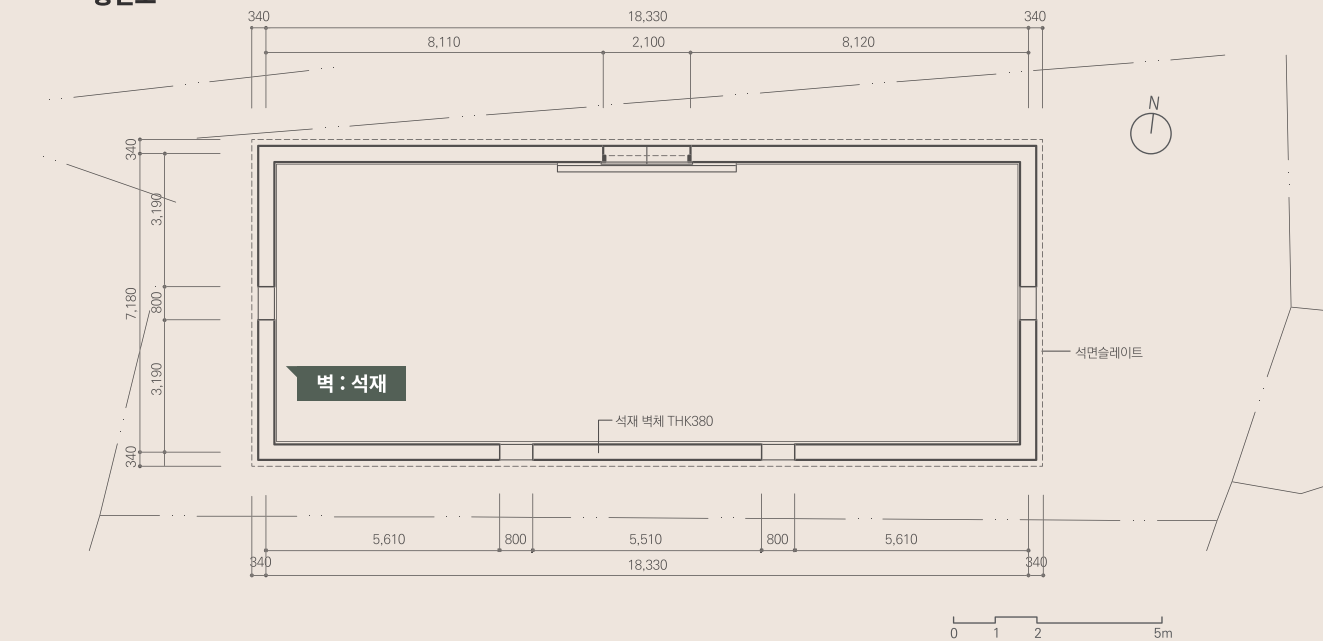


대정돌창고의 1층 전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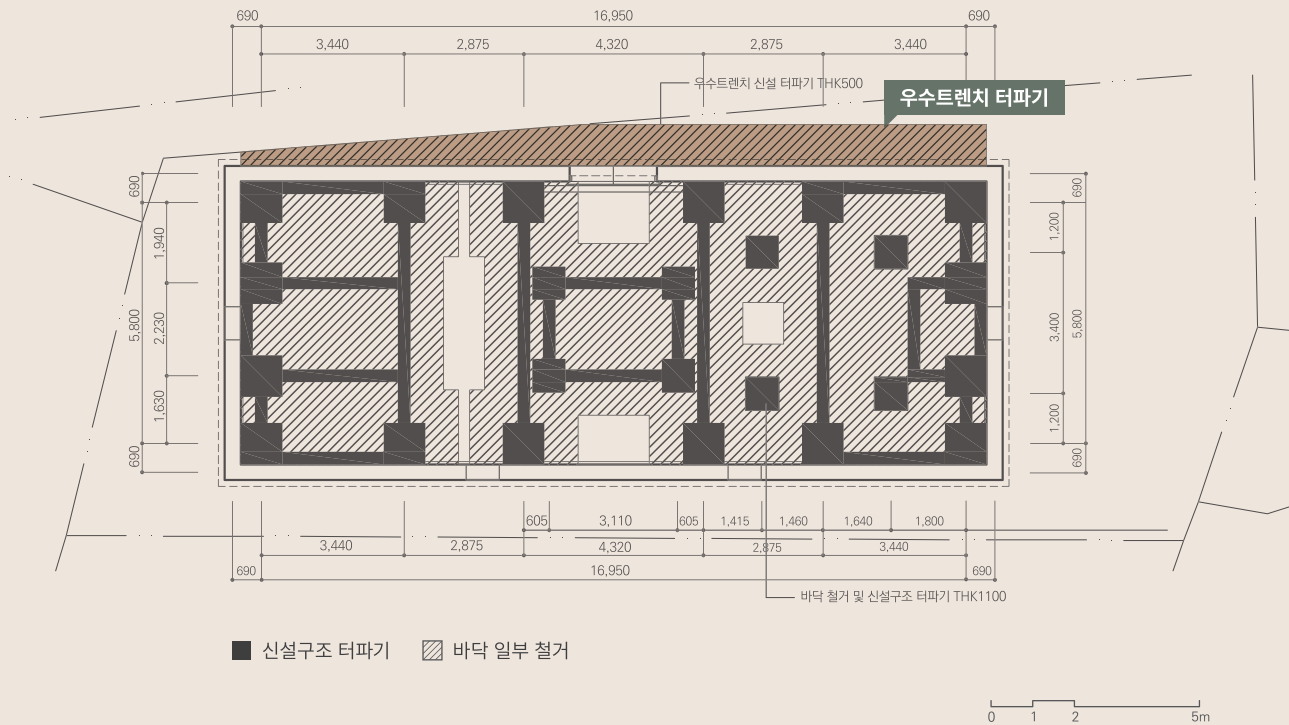
배치도



기존 대정돌창고의
평면도



철거영역도



일부 바닥
철거 후 신설구조
터파기



신설구조 터파기



기초 설치

리모델링 후 대정돌창고의 1층 평면도



기존 문 철거 후 피벗힌지문 설치



1층 도자기 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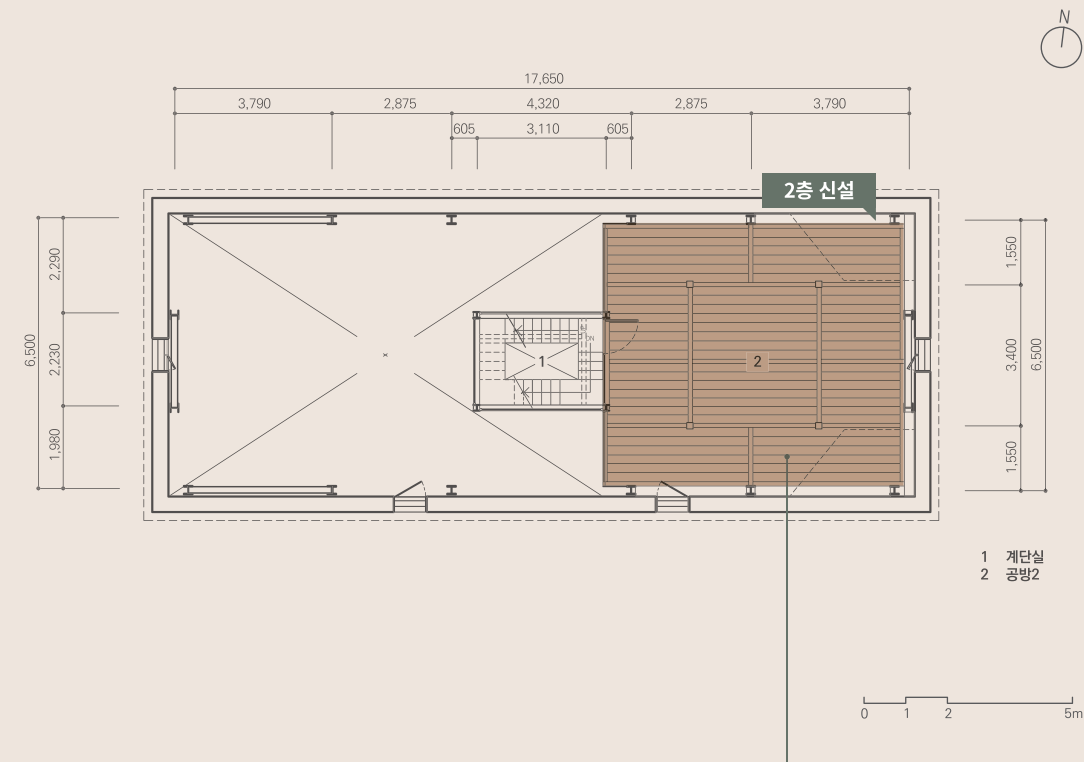


계단실과 작은 정원 조성



1층 화장실과 작업실 외의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활용

리모델링 후
대정돌창고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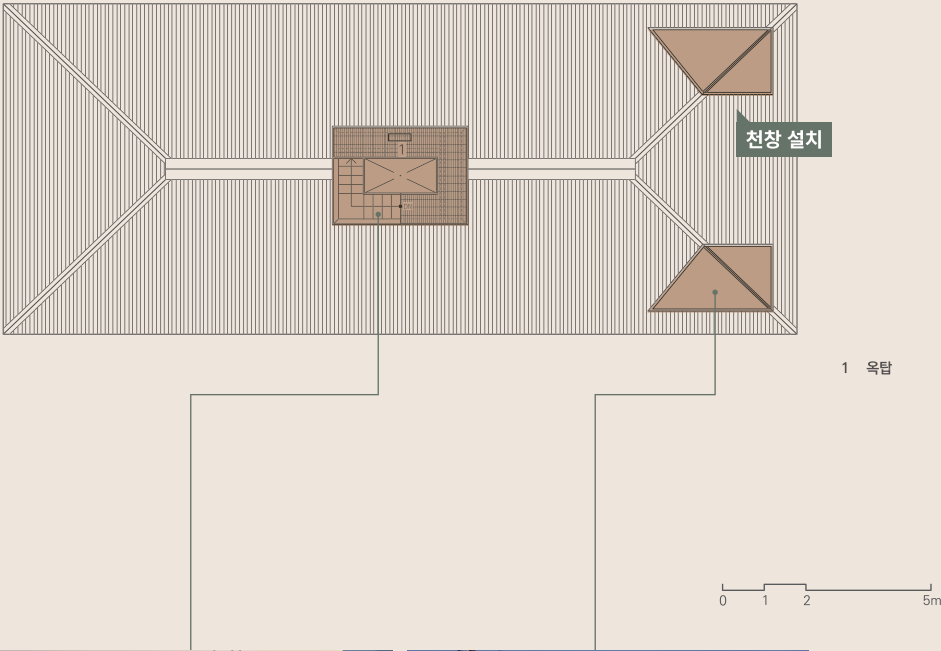


높은 층고를
활용하여
복층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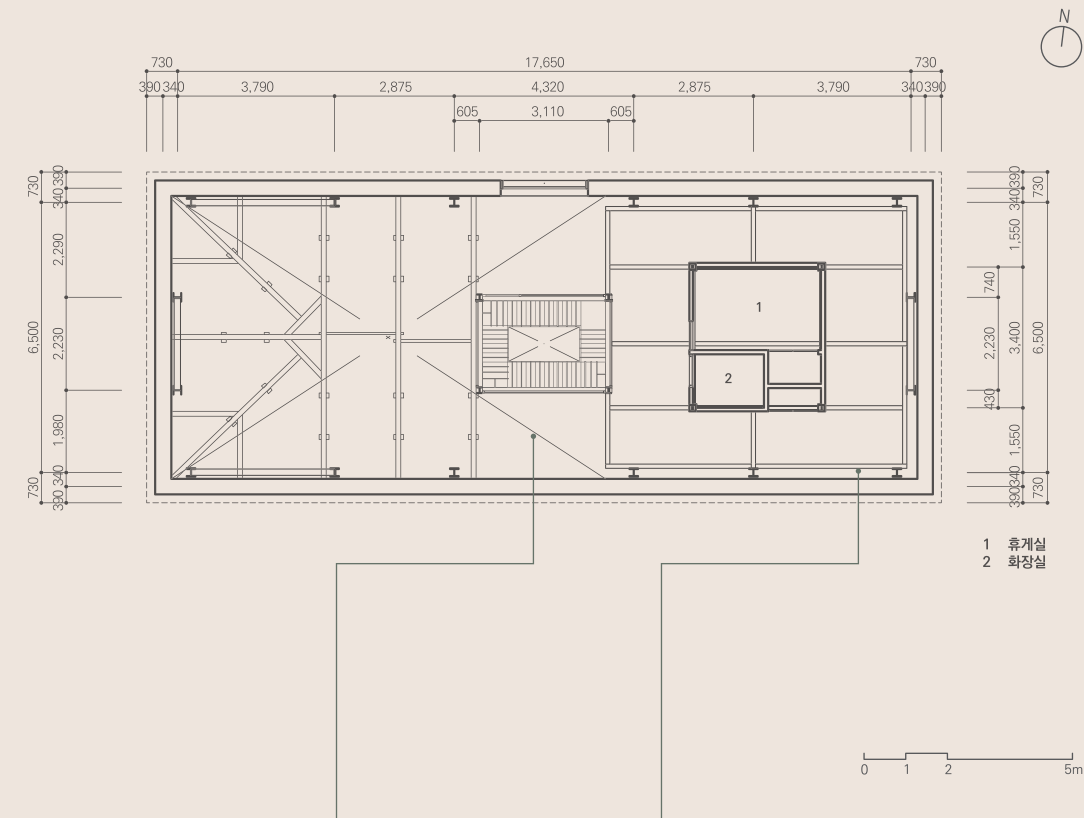
2층은 1층 공방에서 만든 도자기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

리모델링 후
대정돌창고의 옥탑 평면도



계단실 옥탑에서 바라본 주변풍경

리모델링 후
대정돌창고의 1층 천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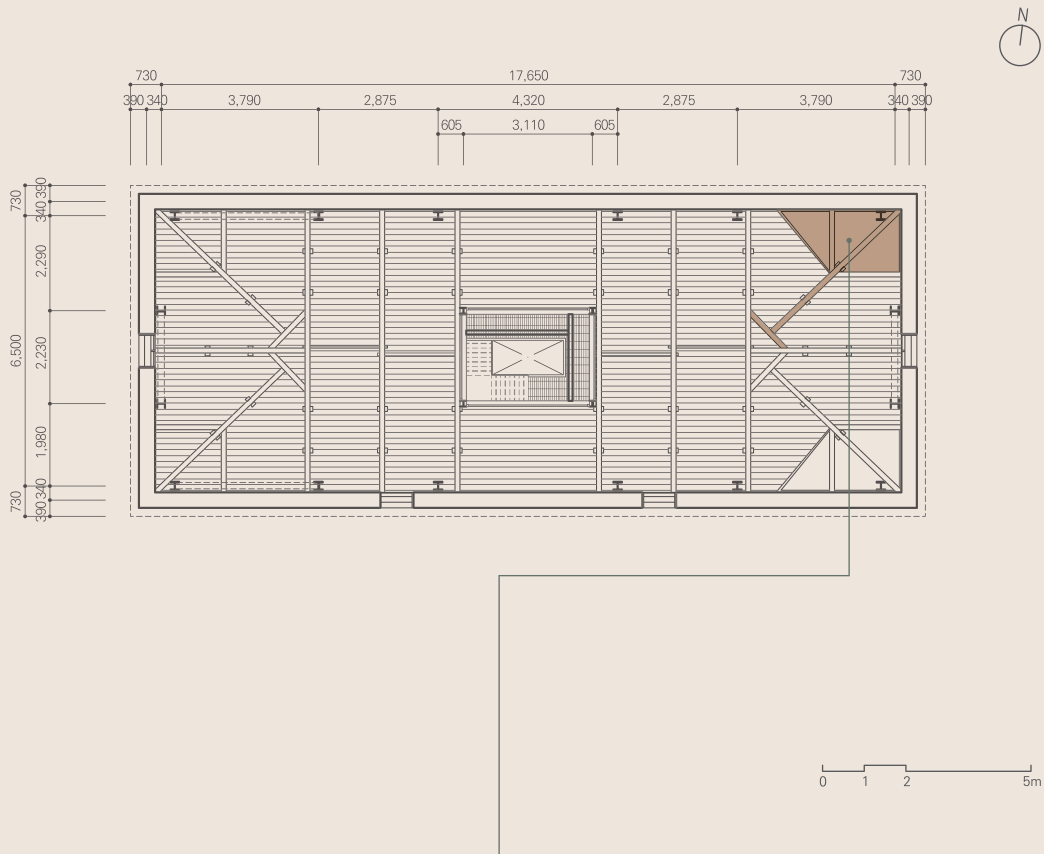


1층 도자기 공방의 천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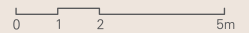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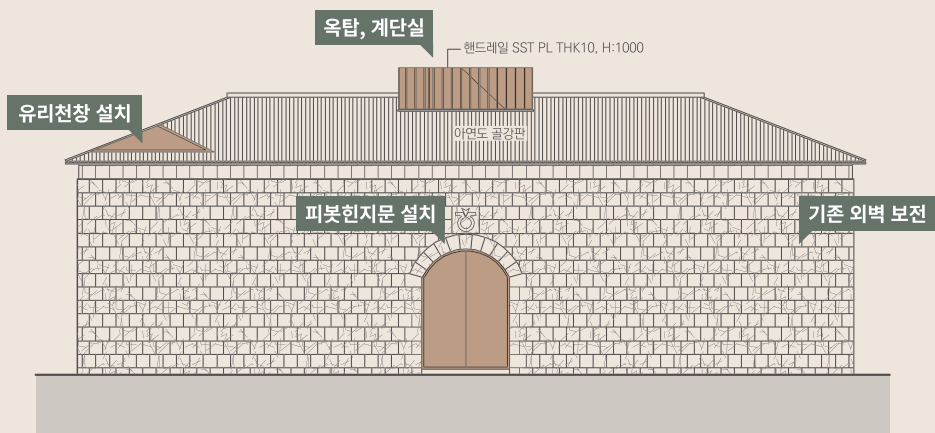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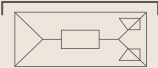
1층 전시공간에 빛이 유입될 수 있도록 2층 바닥 모퉁이를 유리로 시공

리모델링 후
대정돌창고의 2층 천정 평면도



유리천창 주변 구조부재들

정면도



외벽 보전 및
지붕과 문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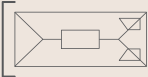
옥탑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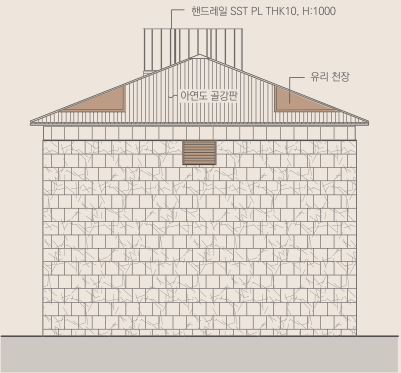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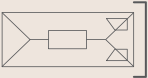
정면에서 바라본 대정돌창고

© 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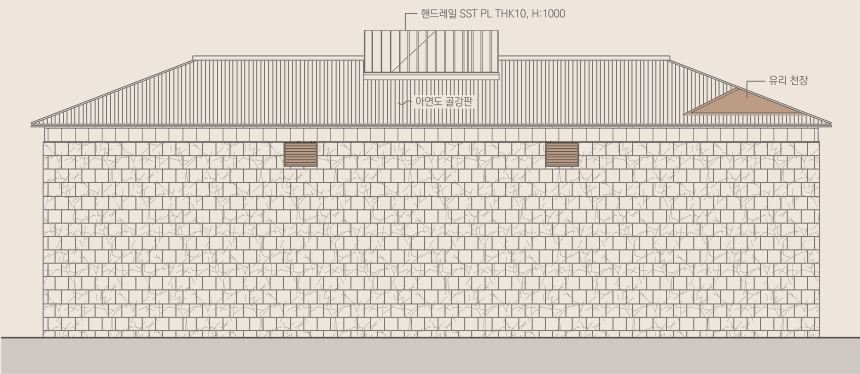
우측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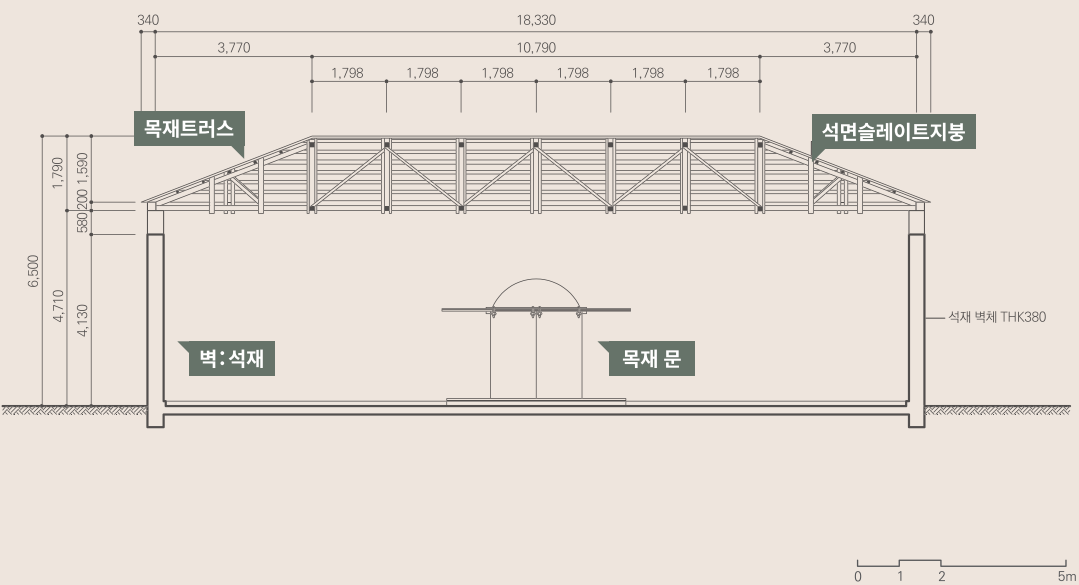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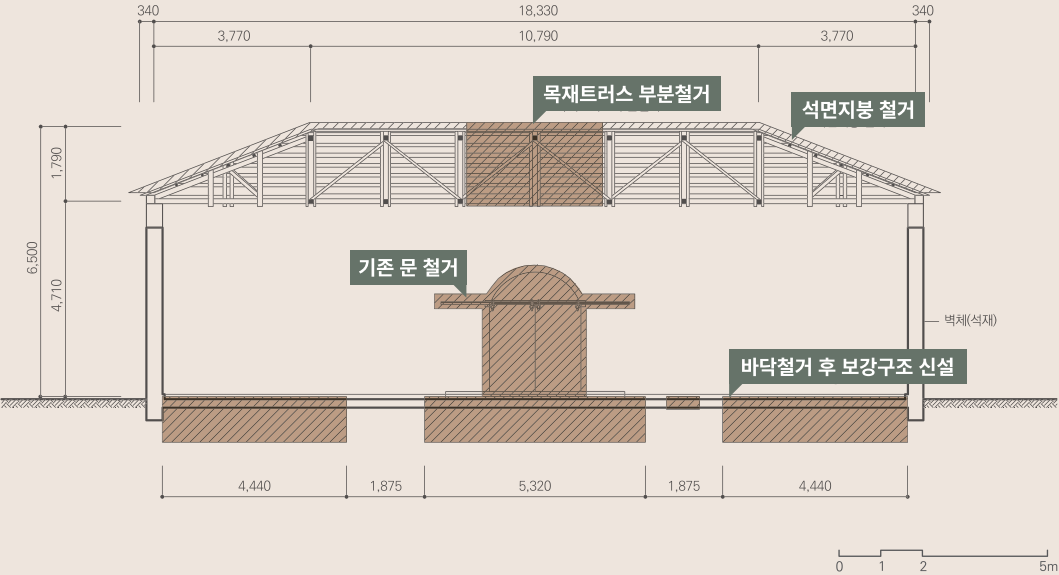
건물의 환기창에 그릴을 설치하고 건축물 내부에서 여단을 수 있는 창문을 덧대어 설치

기존 대정돌창고의 단면도



슬레이트 지붕과 목재트러스, 석벽으로 구성된 기존 대정돌창고의 모습

철거영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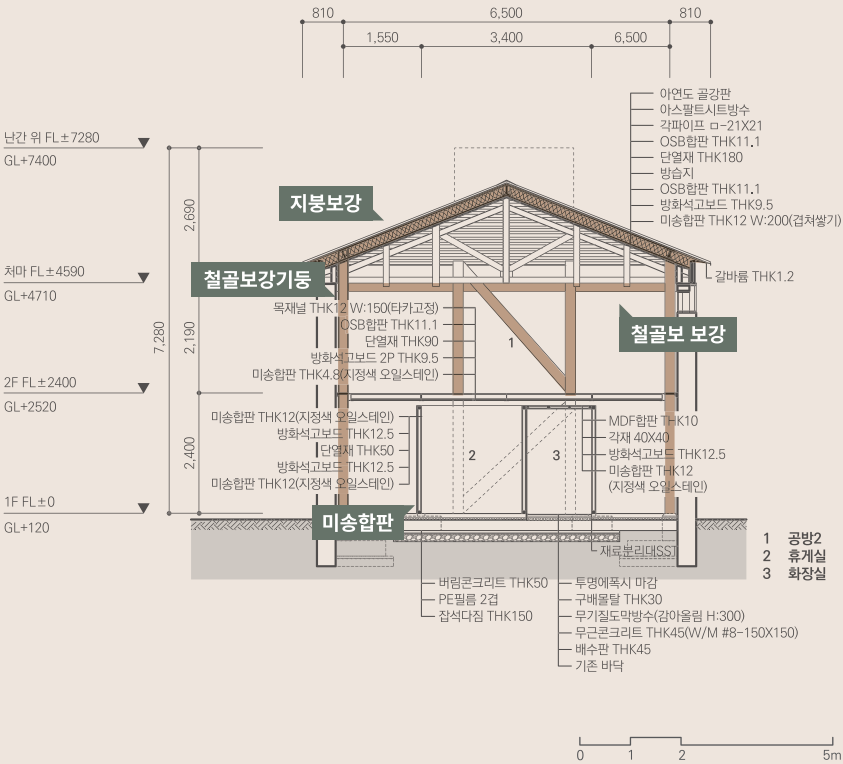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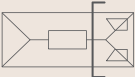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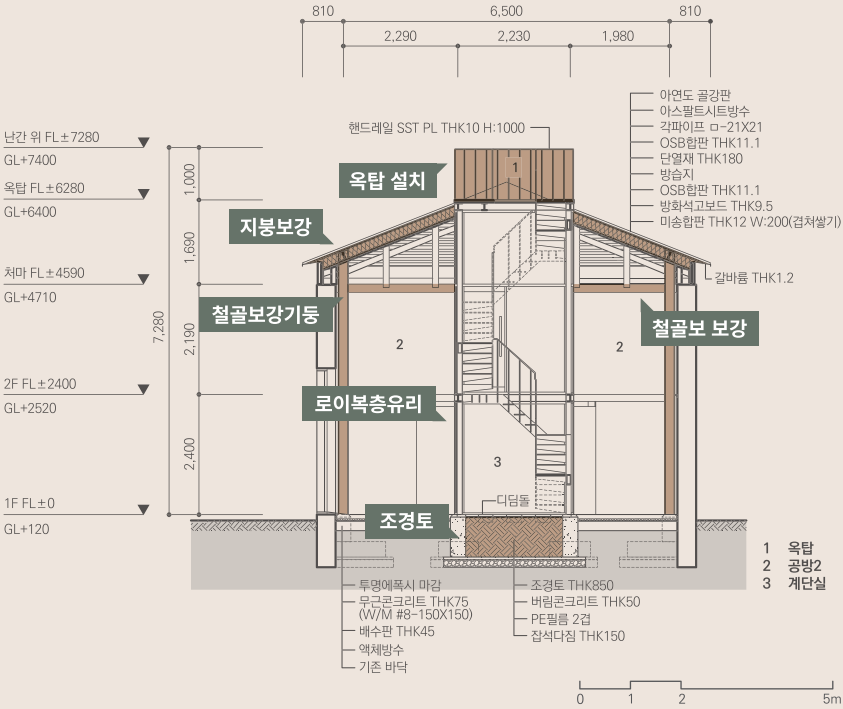


계단실 설치를 위한 목재트러스 부분 철거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바닥철거 후 보강구조 신설

종단면도



횡단면도



지붕구조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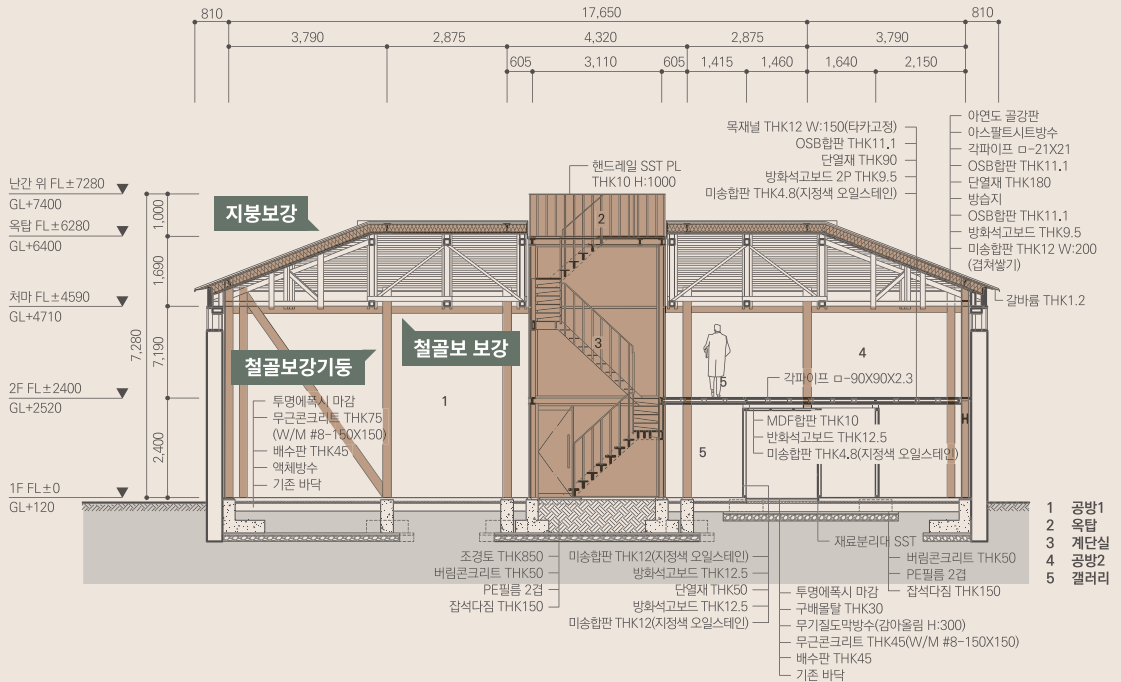
철골보와 기둥을 설치하여 구조보강



2층 바닥구조



1층 화장실과 작업실 설치를 위한 벽체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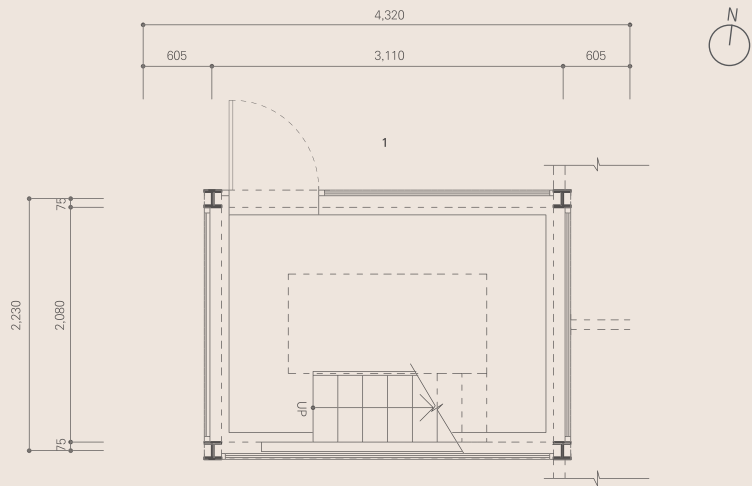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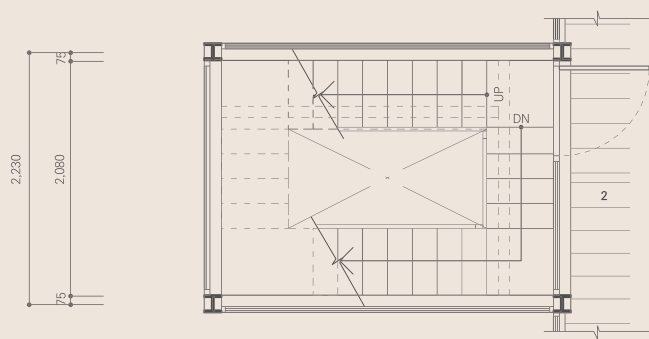
© 노경

계단실에서 바라본 1층 도자기 공방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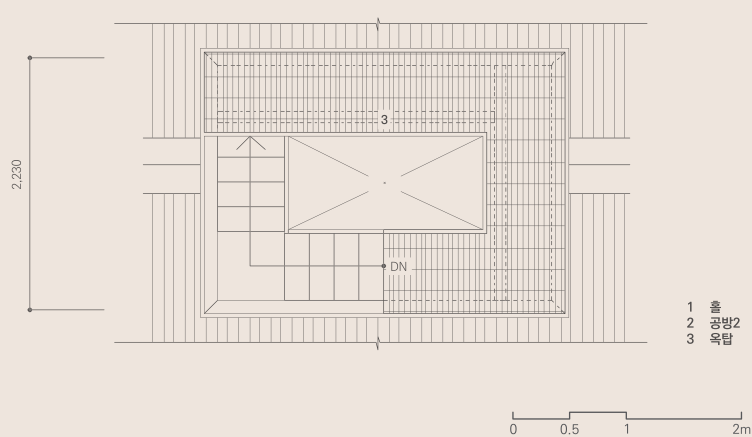
지상1층
계단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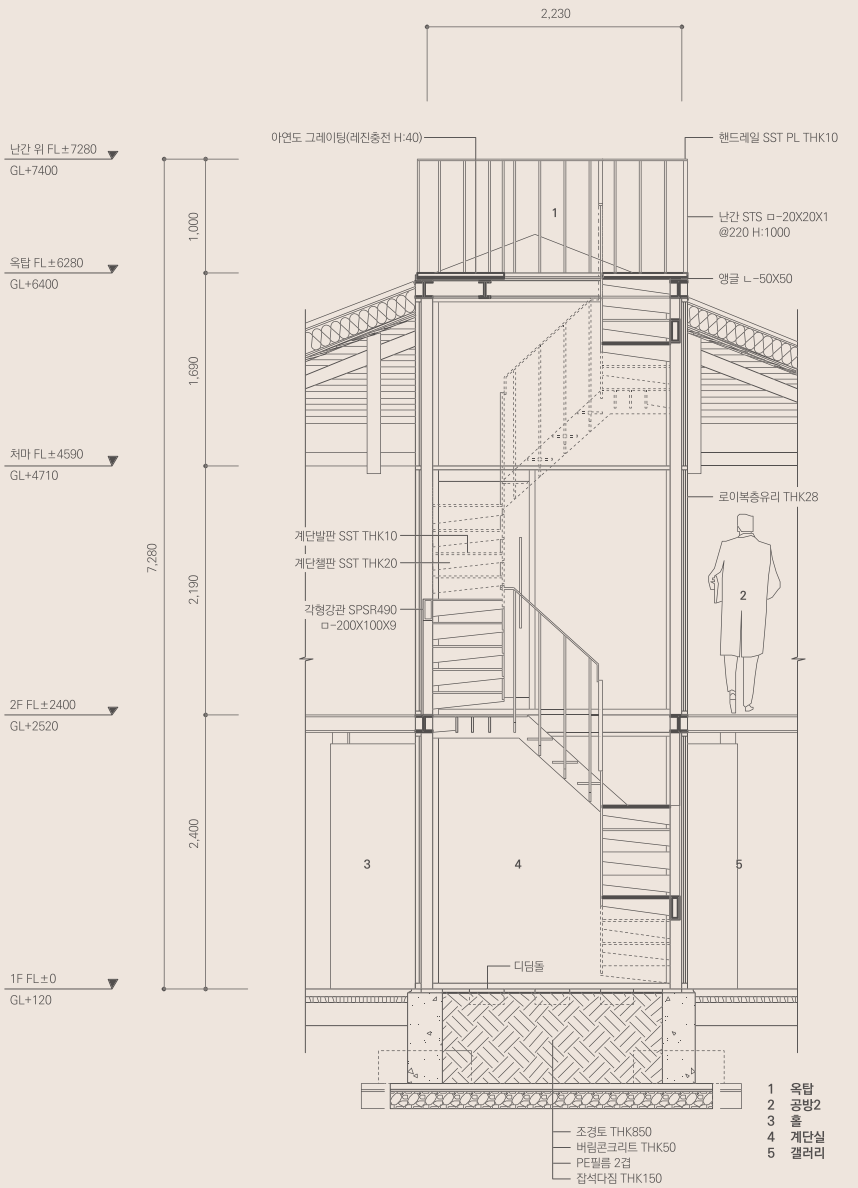
지상2층
계단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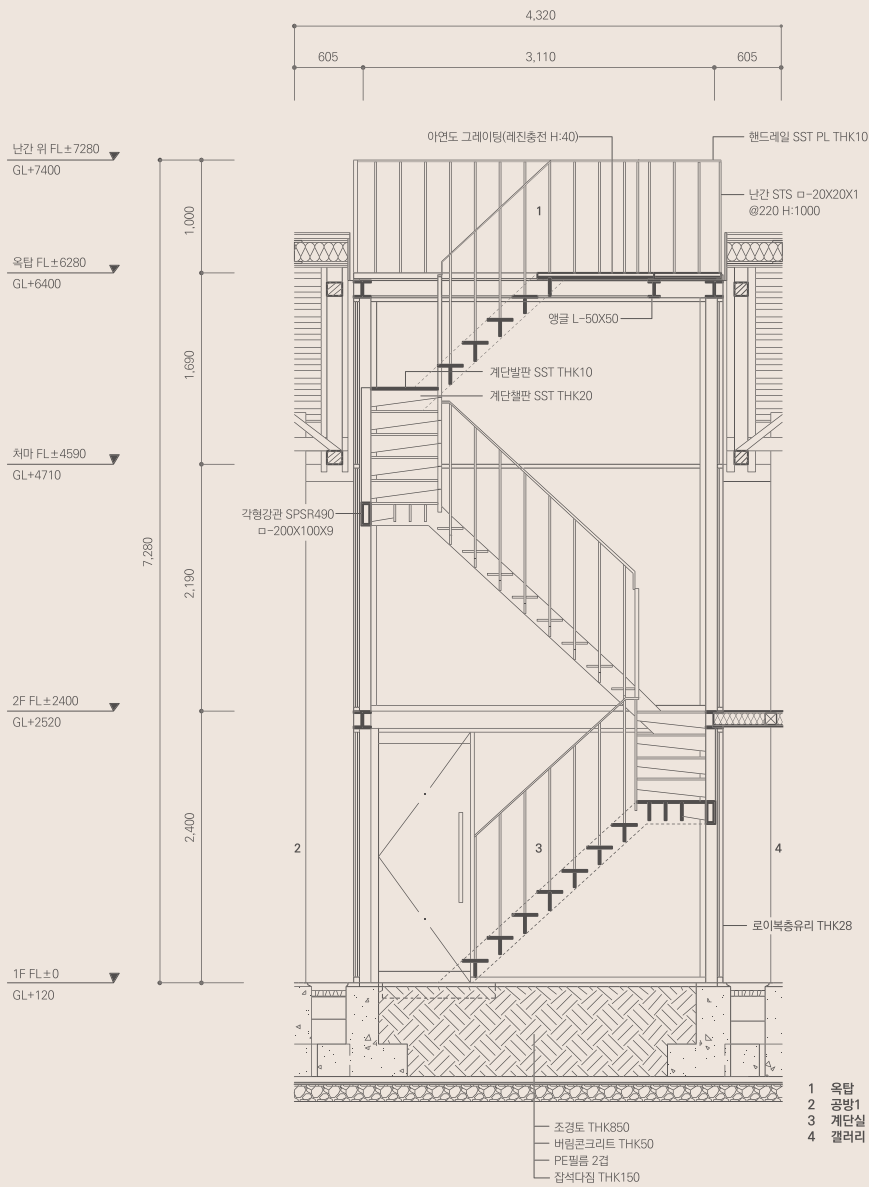
옥탑
계단평면도



계단 종단면도



계단 횡단면도



04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다

최승용·김영호 대표는 시문돌창고 바로 옆에 있는 2층 건물을 매입하여 ‘애매하우스’로 리모델링 하였다. 마늘창고였던 1층은 카페로, 살림집이었던 2층은 아티스트 레지던스로 활용 중이다. 현재 2층 아티스트 레지던스에는 5명의 작가가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대정돌창고에서는 주 2회, 각 회마다 5명씩 총 1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도자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두 대표는 이곳에서 도자기를 중심으로 시골에서 살아가기 위한 손기술을 배우고 도구를 공유하여 만든 물건을 디자이너와 함께 제품화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최승용·김영호 대표는 꾸준히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경쟁하지 않으면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애매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모임’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남해와 그 인근지역에서 생산하는 공예품과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돌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각미술 전시 입장과 카페운영, 출판 등으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

두 대표는 향후 남해에 남아있는 돌창고 15개를 하나씩 재생하여 문화인프라의 거점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돌창고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문화와 예술로 삶의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로 다음의 미션을 갖는다.

- 우리의 사용이 허가된 남해의 돌창고를 보존하고 재생한다.
- 최선을 다할 기회를 얻지 못한 창작자의 작품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 폭 넓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이 문화와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험을 기획하고 실현한다.
- 이와 같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의 가치에 공감하는 공동체와 협력한다.

출처 : 남해 돌창고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dolchanggo.com/about/>)



© 최승용

3

강릉 버드나무 브루어리

Gangneung Budnamu Brewery

- 01 과거의 역사를 잇다
- 02 실용적인 쓰임이 있도록 만들다
- 03 공간의 지속적인 쓰임을 고민하다
- 04 지역에 공간을 돌려주다

강릉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강릉탁주공장은 1926년 강릉합동양조장으로 시작하여, 1970년대 홍제동으로 이전해 와 2014년 폐업 전까지 90년 가까이 술의 역사가 이어져 온 곳이다. 전은경 대표는 동료들과 함께 이곳에서 술의 역사를 이어나가면서 ‘강릉의 맥주’를 만들고자 맥주양조장인 ‘버드나무 브루어리’로 문을 열었다.

전 대표는 ‘버드나무 브루어리’가 단순히 맥주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역의 명소이자 지역주민들의 사랑방과 같은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강릉 버드나무 브루어리

Gangneung Budnamu Brewery

- 위치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61
- 지역·지구 제2층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469㎡
- 건축면적 278.5㎡
- 연면적 387.5㎡
- 층수 지하1층 지상2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 용도 탁주공장 → 맥주양조장





01

과거의 역사를 잇다

버드나무 브루어리는 맥주양조를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들과 양조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인 소규모 브루잉brewing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국내에 2013년부터 이태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크래프트 비어craft beer’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미국의 술로 인식되는 맥주를 한국의 대중적인 술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모임의 구성원이었던 전은경 대표는 우리나라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과거 여행기자였던 시절 해외 탐방을 통해 지역의 와이너리winery가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거나 지역 활성화의 콘텐츠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 전통주도 이와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 대표는 맥주도 우리의 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국적 맥주’를 만들어보고자, 브루잉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공동으로 버드나무 브루어리를 창업하게 되었다. 전 대표는 ‘한국적 맥주’를 지향하기 위해 양조교육기관에서 양주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얻은 지식과 관심,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쌀, 국화, 술 등 전통주에 쓰이는 재료들을 맥주재료로 사용하고, ‘버드나무’라는 순 우리말을 상호로 정하였다. 또한 버드나무 브루어리는 강릉을 상징하는 술강릉의 도시브랜드, 하슬라강릉의 옛이름, 백일홍강릉의 시화를 모티브로 한 맥주 CI를 개발하는 등 강릉을 대표하는 로컬 브루어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화



쌀



오죽



솔



하슬라



백일홍

© 버드나무 브루어리

좌측상단부터 국화, 쌀, 오죽, 솔 강릉의 도시브랜드, 하슬라 강릉의 옛이름, 백일홍 강릉의 시화를 뜻하는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맥주 CI



© 버드나무 브루어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의 버드나무 브루어리

Pub은 Public House, 즉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를 의미

전은경 대표는 양조교육기관에서 전통주를 주제로 ‘지리산 술내길’을 기획하면서 유구한 역사가 있음에도 경영난으로 인해 문을 닫는 여러 막걸리 양조장을 접하게 되었다. 전 대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술의 역사를 이을 수 있는 맥주 양조장을 창업하기 위해 오래된 막걸리 양조장을 중점적으로 물색하였다.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창업자들은 브루어리를 단순히 맥주를 제조하는 공장이 아니라 ‘펍(Pub/Public house)’ 즉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하여 맥주의 재료나 이름을 정하는 것만큼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창업자들은 본래의 쓰임이 사라져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공간에 현대적인 기능을 붙여넣어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취지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로컬 브루어리로써의 가능성

처음에는 양조장과 소비층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맥주 양조장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맥주양조장은 양조설비와 서비스공간을 포함하여 80~100평 정도의 규모와 4m 이상의 층고를 갖추고,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공간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지방 도시를 물색하게 되었다. 전은경 대표와 공동창업자들은 지방도시 중 관광수요가 있고 평일에도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인구 20만 명 이상인 곳이면서,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은 인천, 제주, 강릉이 ‘로컬 브루어리’로써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던 중 강릉에서 방풍도가 막걸리를 운영하는 창업자 중 한 명이 오래된 막걸리 공장인 ‘강릉탁주공장’을 발견하여 소개해주었다.



© 버드나무 브루어리

1970년대에 사용하던 발효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



© 버드나무 브루어리



© 버드나무 브루어리

2015년 첫 방문시 강릉탁주공장의 모습



© 버드나무 브루어리

지붕형태와 목조트러스가 그대로 남아있는 기존 강릉탁주공장의 내부모습

90년 가까이 술의 역사가 이어져 온 공간

2014년 말 강릉탁주공장을 방문한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창업자들은 그 곳이 한국적 맥주라는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였다. 강릉탁주공장의 전신은 1926년에 설립된 강릉합동양조장으로, 1970년대에 강릉탁주공장으로 분리되어 홍제동으로 이전하였다. 홍제동의 강릉탁주공장 건물은 1970년대에 건립되었지만 술의 역사는 1926년부터 9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강릉탁주는 유네스코 인류무형 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강릉단오제의 신주神酒(신과 인간이 만나 한바탕 축제를 즐기는 나눔의 양식으로 모두의 행운을 기원하는 술, 음력 4월 5일 신주빛기를 통해 강릉단오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를 만들기도 한 강릉의 대표적인 막걸리 양조장이었으나, 막걸리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면서 2014년 완전히 폐업하였다. 하지만 양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와 층고를 가지고 있어 술을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였으며, 쇠퇴한 구도심에 위치하여 주변상권은 없었지만 시외버스터미널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상의 이점이 있었다.



강릉고속버스터미널에서 차로 약 5분, 강릉역에서 차로 약 10분 소요

술의 역사를 잇는 공간으로 활용

버드나무 브루어리는 전통주의 재료를 맥주재료로 활용함으로써 전통주의 역사를 잇는 맥주를 지향하고 있어, 창업자들은 막걸리 양조장이 그 컨셉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판단하였다. 강릉탁주공장은 막걸리의 인기가 시들면서 경영난으로 폐업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막걸리 공장 특유의 지붕형태와 나무천장, 1974년 용기검정을 받은 발효조, 실험도구 등 공장에서 쓰던 대부분의 기물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특히 트러스 구조에 일본식 양조장 구조가 혼합된 1920년대 또는 1930년대 막걸리 공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창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창업자들은 이러한 양조장들이 오랜 역사를 뒤로 하고 문을 닫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보존·활용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된다면, 그 역사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창업자들은 강릉탁주공장을 버드나무 브루어리로 재탄생시키고자 하였다. 막걸리 양조장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의 스토리에 초점을 두어 ‘술의 역사를 잇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강릉의 맥주’를 만들기로 하였다.



기존 강릉탁주공장의 양곡매출통지서



© 버드나무 브루어리

막걸리 제조에 필요한 고두밥의 증기 배출을 위해 설치된 천창

02

실용적인 쓰임이 있도록 만들다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창업자들은 기존 강릉탁주공장의 공간을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지역의 산업유산인 강릉탁주공장이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리모델링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이으면서 현대에도 실용적인 쓰임이 있도록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강릉탁주공장은 지역주민들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하여 지역 재생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투명한 유리창으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맥주양조설비



버드나무 브루어리 입구에 들어서면
측면에 보이는 맥주양조설비

막걸리 양조장이었던 공간의 장소성이
곧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정체성^{identity}'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2018.07.18.

전은경 대표 인터뷰 中



공간과의 끊임없는 대화

강릉탁주공장은 1926년 강릉 최초의 합동양조장이었던 강릉합동양조장이 소주, 탁주 등 여러 개로 분리된 곳 중 한 곳으로 2014년 폐업하였다. 건축물대장상 강릉탁주공장은 1971년 건립되었고 주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와 벽돌조의 복합구조였으며, 지붕은 목재 트러스구조였다. 강릉탁주공장은 크게 트러스 구조로 된 막걸리 양조장 두 동과 슬라브 구조로 된 사무동 한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막걸리 양조장은 보일러실, 자재창고, 발효실, 국실 등 용도에 맞게 작은 실들로 구획되어 있었고, 사무동은 1층에 제품 출하창고, 2층에 사무실과 실험실이 있었다.

외관은 되도록 손대지 않으려고 했고, 내부도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계획하였다. 리모델링 계획 시 무엇을 더하기보다 무엇을 빼야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조금씩 철거하면서 어떤 범위까지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공간을 구성하였다. 도면도 없이 시작한 공사는 공간과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었다.



© 버드나무 브루어리



© 윤준환

도로 맞은 편에서 바라본 강릉탁구공장(기존)과 버드나무 브루어리(현재)



내벽을 헐어 탁 트인 서비스공간을 조성하되, 일부 구조보강을 위해 철재기둥 설치

서비스 공간으로의 활용전략

예전 강릉탁주공장의 외관과 주요 구조는 최대한 보전하면서, 일부는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개조하였다. 기존의 공간은 작은 실로 구획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야가 막혀 답답한 느낌이었다. 결국 내벽을 헐어 탁 트인 서비스공간을 마련하고, 일부 구조보강을 위해 철재기둥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내부공간의 구조는 변했지만 오래된 양조장 특유의 천장과 벽, 바닥 등의 공간 구성요소가 더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분진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는 목재 트러스로 된 천장을 보수하였다.



작은 실로 구획되어 있던 기존 공간을 서비스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벽체 일부 철거



막걸리 양조장을 연결하는 복도의 천장

© 머드나눔 브루어리

옛 강릉탁주공장 드러내기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서비스공간과 맥주양조시설은 분리되어 있으나, 서비스공간에서 맥주를 양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통유리창을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연결해주었다.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입구에서부터 맥주를 마시는 공간까지 어디에서든 맥주양조시설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70년대에 검증받아 사용해진 막걸리 발효조는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다가 맥즙제조공정에서 월풀조로 사용하고 있다.



서비스공간과 맥주양조시설을 시각적으로 연결하고자 통유리창 설치



옛 강릉탁주공장의 모습을 보전하기 위해 막걸리 양조에 쓰였던 물건들을 전시하여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정체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특히 지붕의 형태는 막걸리 양조장이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로, 야외정원 내 지붕이 잘 보이는 위치에 테이블을 배치하기도 하였다.



막걸리 양조장 특유의 지붕을 잘 볼 수 있는 야외정원



카운터에서 바라본 서비스공간의 모습



강릉탁주공장에서 고두밥을 퍼서 말리던 곳을 실내정원으로 활용



주출입구에서 바라본 서비스공간의 모습



동측동 서비스공간에서 바라본 모습

03

공간의 지속적인 쓰임을 고민하다

버드나무 브루어리는 창업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도한대로 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맥주 제조시설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위생기준에 따라 천장, 벽, 바닥을 모두 가려야 했기 때문에 예전 공간의 분위기를 살릴 수 없었다. 특히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리모델링을 통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시공 중 철거할 부분과 보전할 부분에 대해 시공자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작업인부들이 오래된 실험기구들을 쓰레기로 오인하여 버린 점은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이다.

오래된 건축물을 보전·활용할 때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작업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색이 벗겨진 곳에 색을 칠하는 작업만 해도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에 어울리는 색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문이나 테이블, 작은 소품들도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 문제작하는 등 섬세하게 접근하고자 했다. 창업자들은 여러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보았지만, 이 같은 작업방식을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아 창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총 공사기간은 8개월로 예상보다 리모델링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공사 비용은 약 3억 원으로, 양조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양조팀원들이 야간작업을 할 정도로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했다.



강릉탁주공장의 실험실 표식



강릉탁주공장에서 사용했던 실험도구들



지붕 리모델링 전(상)과 후(하)의 모습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고민

오래된 건축물은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인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분진이 생기거나 비가 새는 문제는 꾸준히 발생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냉난방이다. 기존 건축물은 단열이 고려되지 않은 채 건립된 것으로, 이를 개선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비용뿐만 아니라 천장에 나무를 덧대는 등 단열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양조장의 모습을 변형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현재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가장 큰 고민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다. 이 지붕은 막걸리 양조장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대표는 석면의 유해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석면 슬레이트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폭설 이후 지붕을 일부 개보수하였으나, 아직 석면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새로 지붕을 만들면서도 그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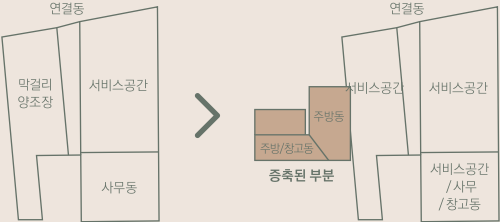


1994년 1월 강릉탁주공장에서 촬영한 강릉탁주공장 직원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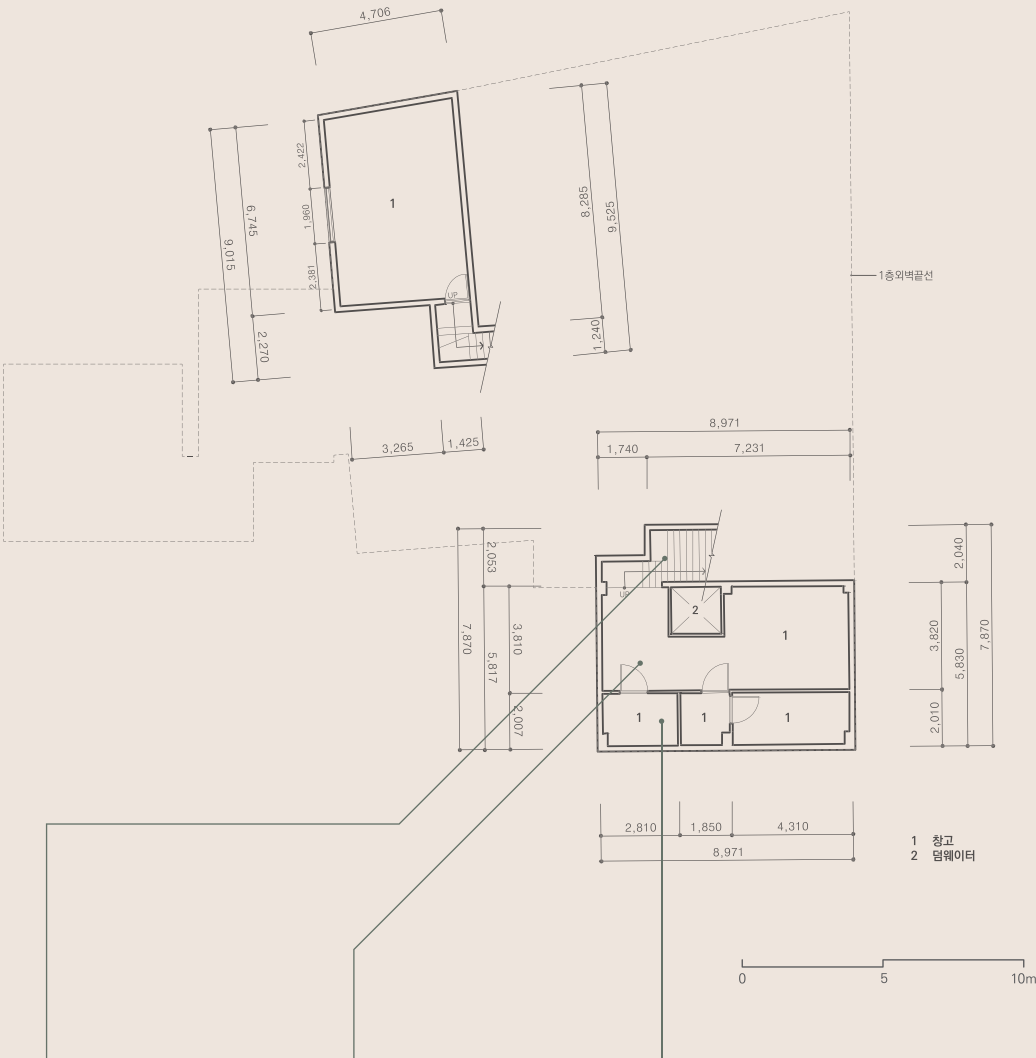


2015년 9월 버드나무 브루어리 오픈식에 모인 전(前) 강릉탁주공장 직원들

배치도



지하1층 평면도



지하1층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입구



지상1층의 냉장보관창고와 연결되는 덤웨어터와 지하1층 창고의 모습



창고 내부의 모습

1층 평면도



고두밥을 퍼서 말리던 곳을
실내정원으로 활용



실로 구획되어 있던
내벽의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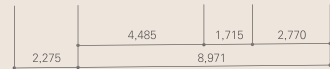
내부의 벽을
철거하여 넓은
서비스공간으로
활용



서비스공간과 양조장 사이 유리창을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연결



2층 서비스공간으로 올라가는
기존 계단(우)과 포장재를 달리한 계단(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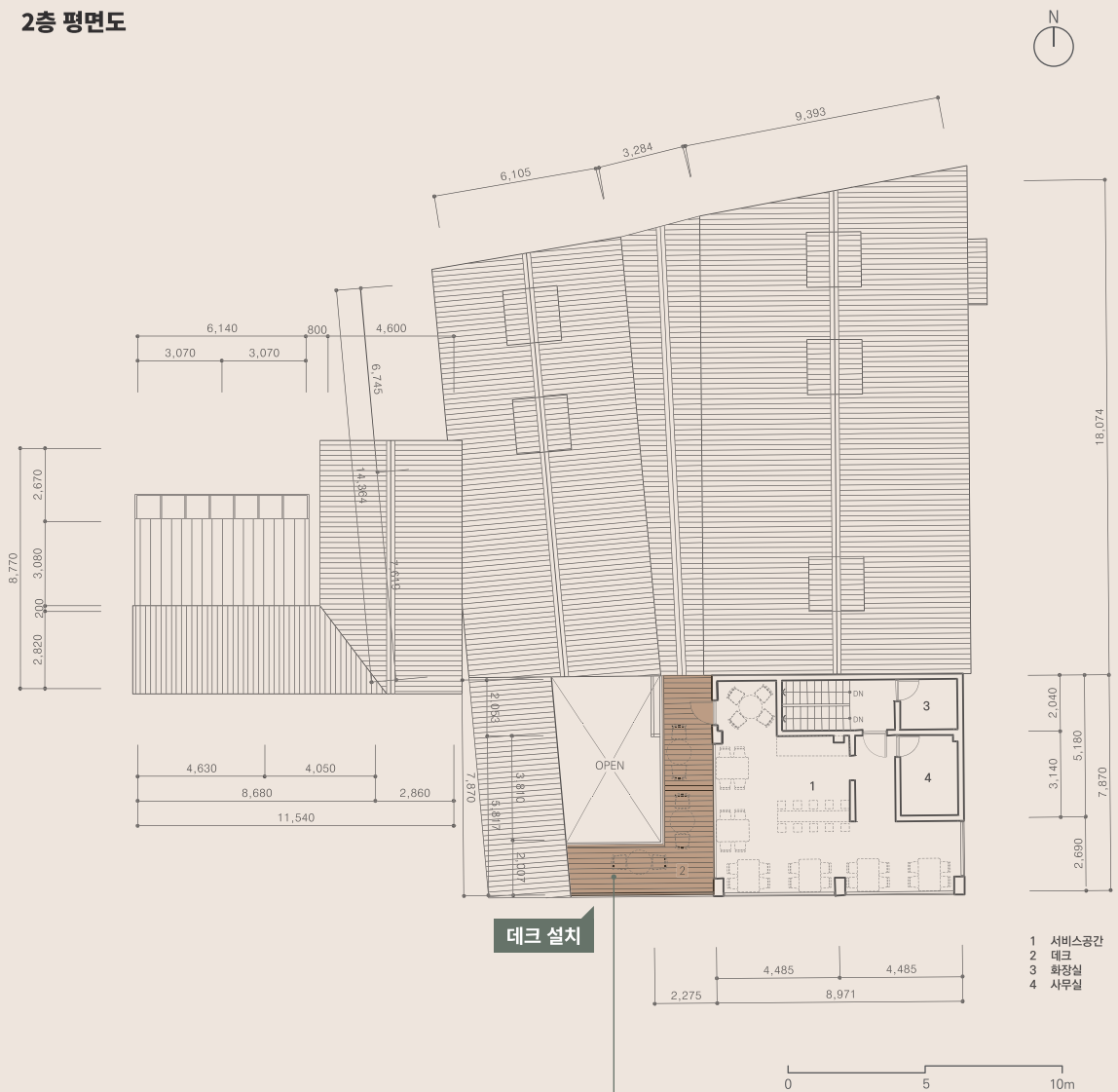
- 1 서비스공간
- 2 주류제조장
- 3 접대이터
- 4 화장실
- 5 냉장보관창고
- 6 사무실
- 7 주방
- 8 실내화단

0 5 10m

양조장과
서비스공간의
시각적 연결

주방 및
화장실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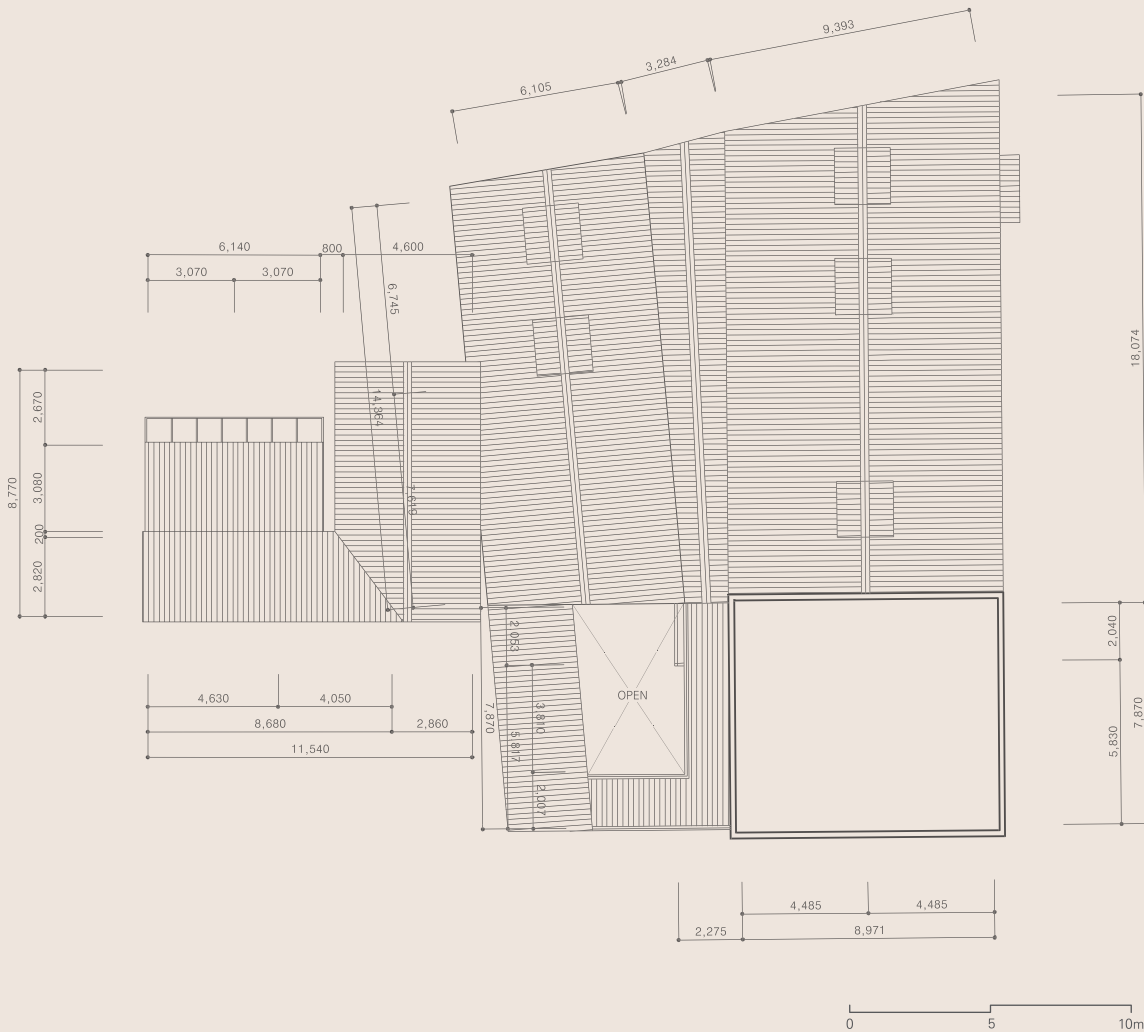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2층 데크공간. 중정과 양조장의 지붕구조를 볼 수 있는 위치에 데크를 설치하여 서비스공간으로 활용

옥외데크
설치 및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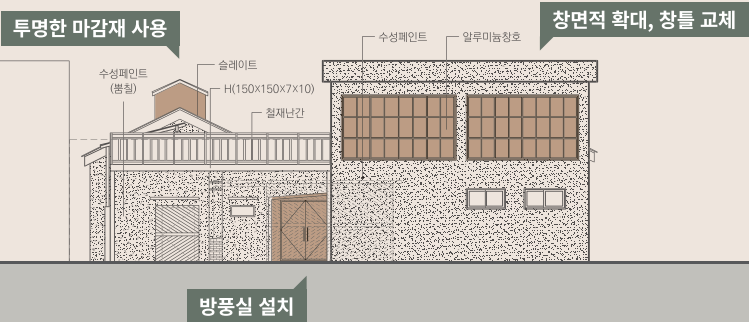
정면도



강릉탁주공장의 정면(좌)과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정면(우) 모습



중정에서 바라본 강릉탁주공장(좌)과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모습(우)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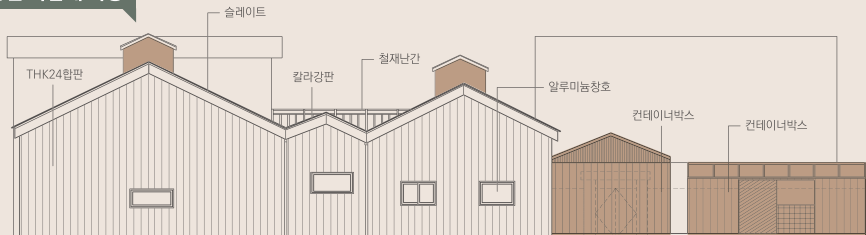


합판으로 마감된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배면



컨테이너로 증축한 화장실

투명한 마감재 사용



주방 증축

화장실 증축

0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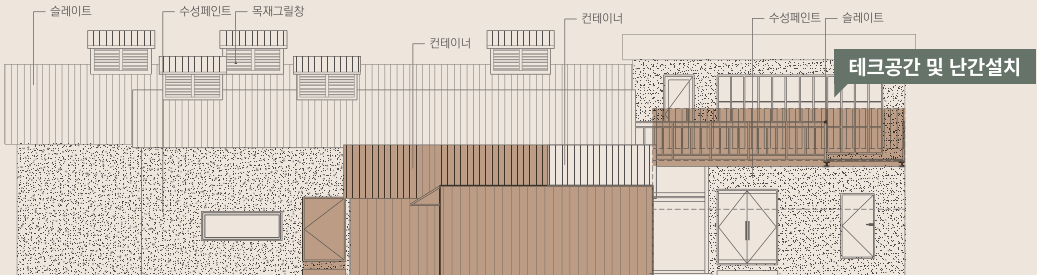
좌측면도



서비스공간에서 뒷마당으로 나올 수 있는 출입문



뒷마당에서 바라본 전경



화장실 및 주방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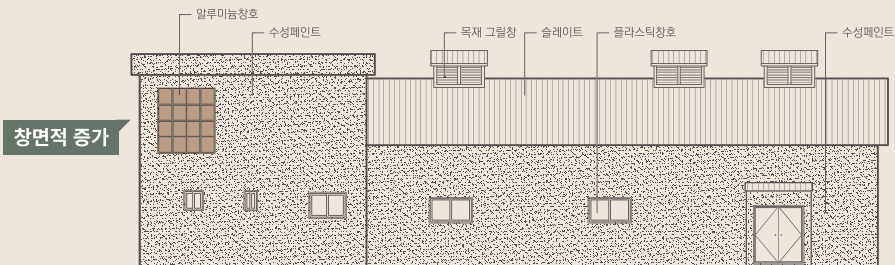
우측면도



주출입구 우측면의 서비스공간·사무·창고동



주출입구 우측면의 양조장 겸 서비스공간



0 5 10m

A-A' 단면도



카운터에서 바라본 1층 서비스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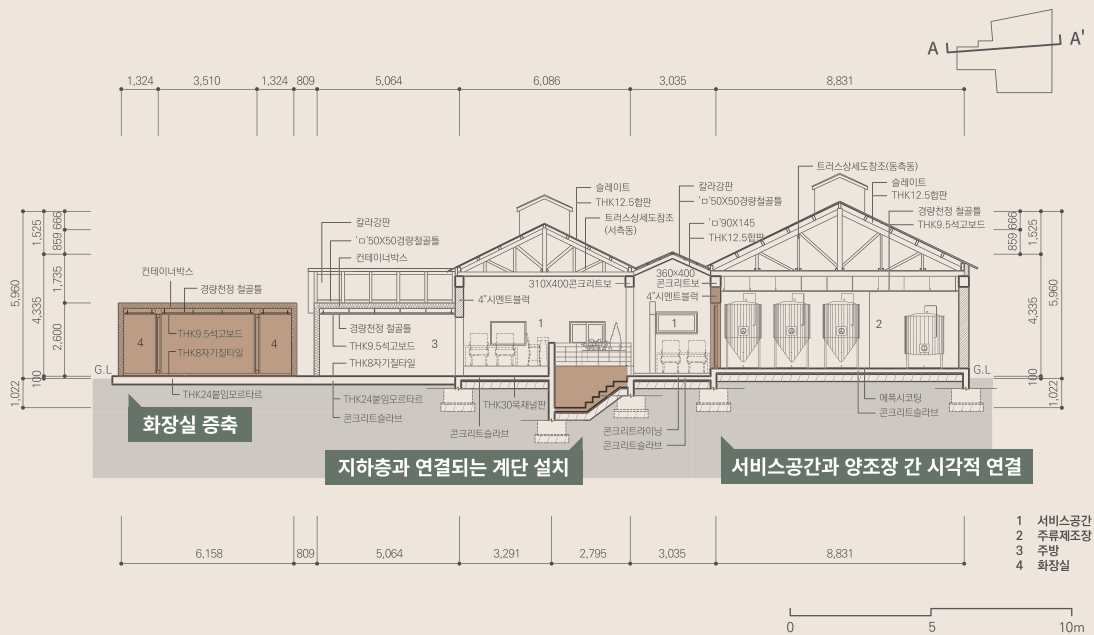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서비스공간과 양조장을 시각적으로 연결



투명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실내정원과 서비스공간의 채광창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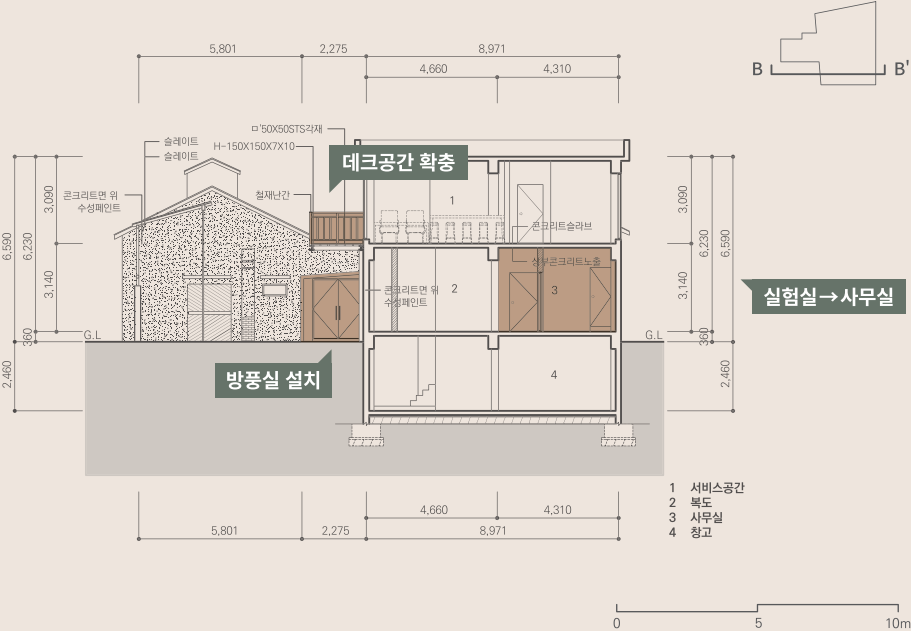
2층 데크에서 바라본 서비스공간과 연결동의 슬레이트 지붕과 갤러리



B-B' 단면도



버드나무 브루어리 출입구에 설치된 방풍실 및 2층에 확충된 데크



C-C'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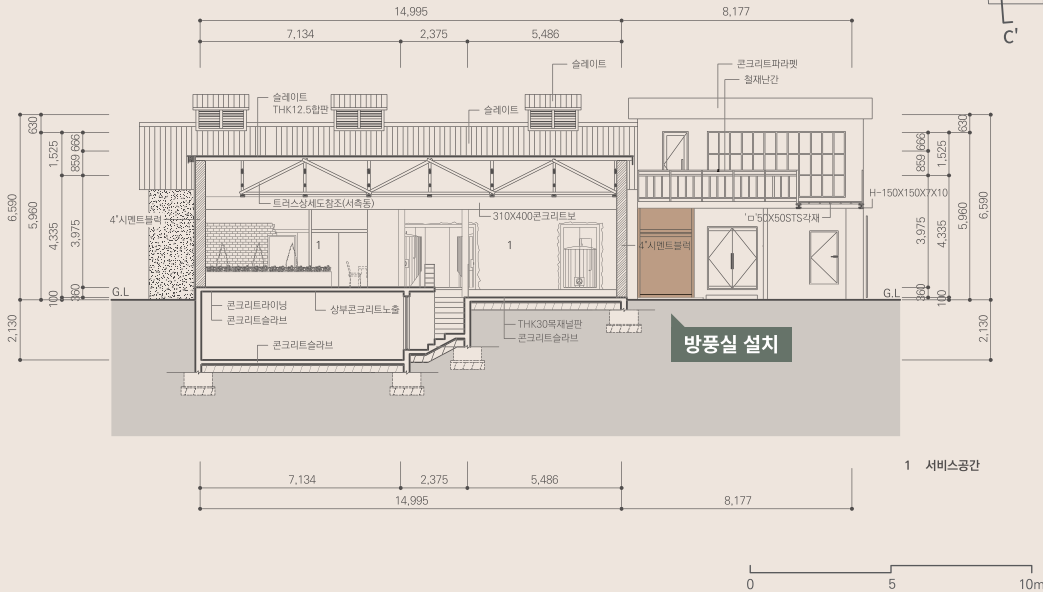
카운터에서 바라본 서비스공간의 모습



기존 강릉탁주공장의 주출입구 및 사무실 출입구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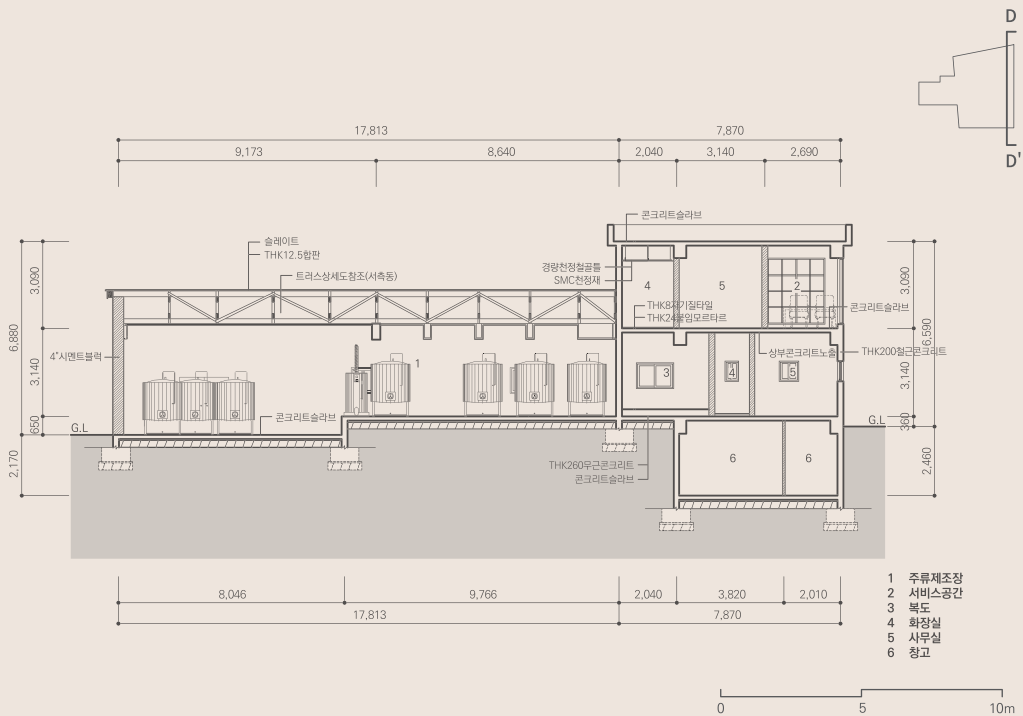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주출입구, 양조장 출입구, 냉장보관창고 문.
2층을 서비스공간으로 활용하고
단열을 위해 주출입구에 약 2m x 2.2m의 방풍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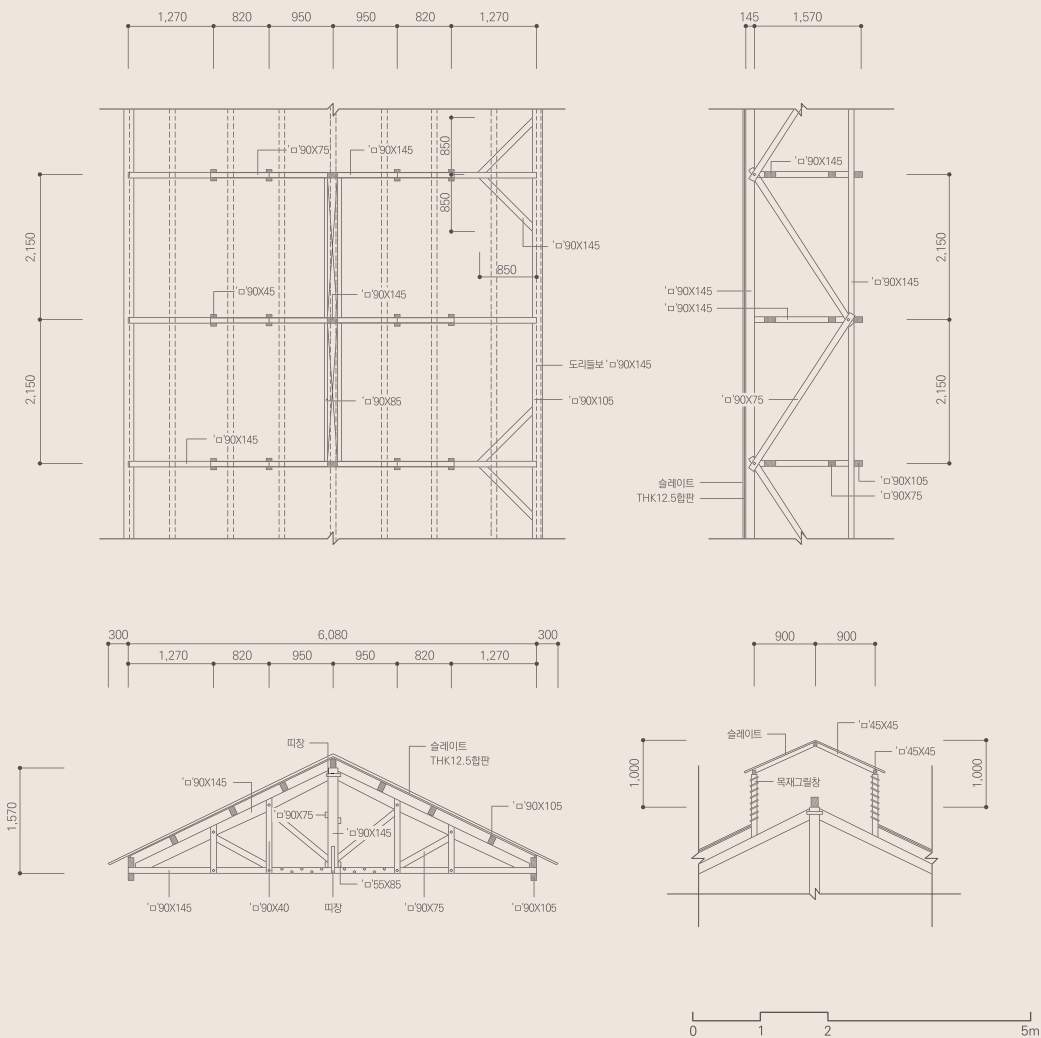
D-D' 단면도



맥주저장탱크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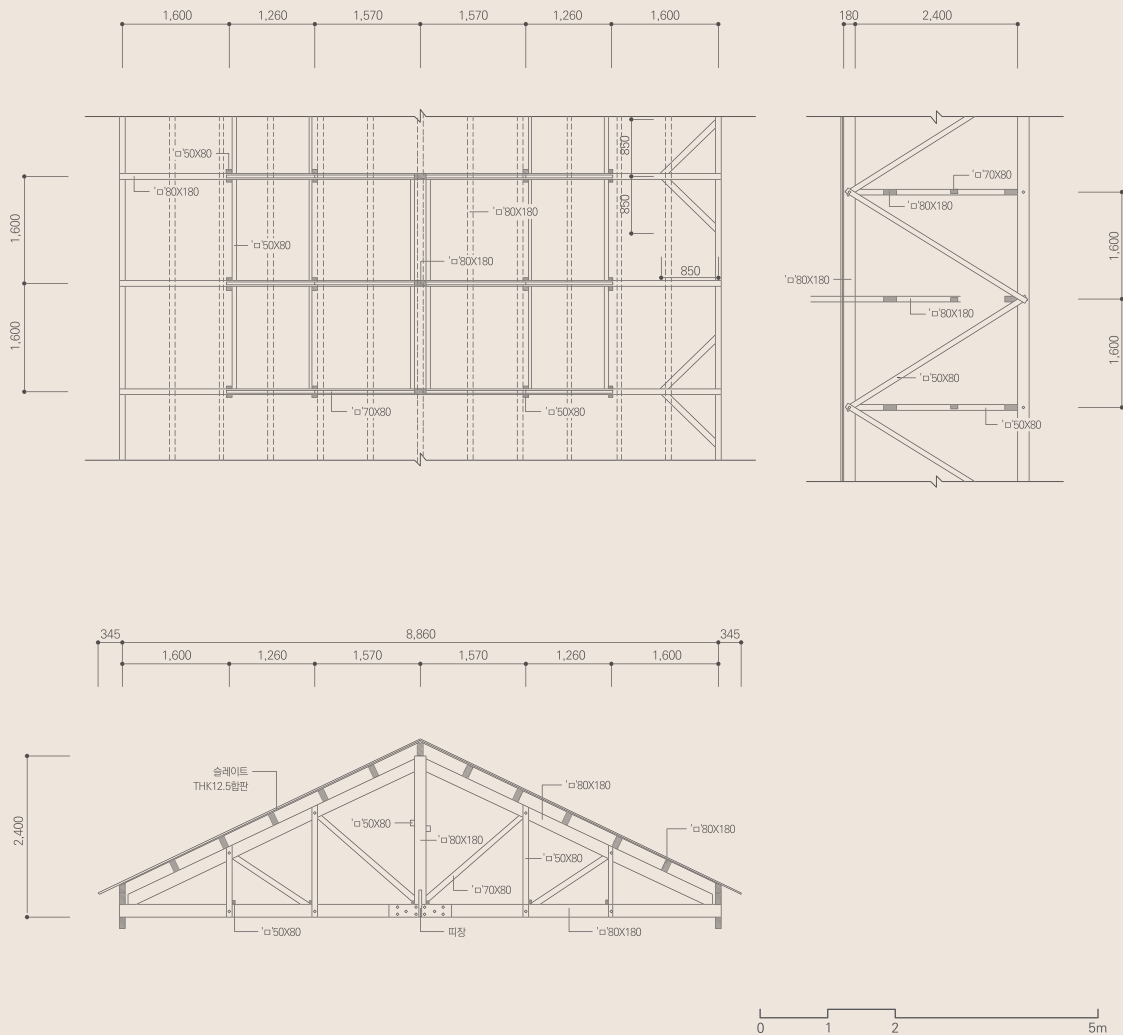


트러스 상세도(서측동)



채광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붕 갤러리의 남측면과 북측면을 골강판(좌)에서 투명한 마감재(우)로 교체

트러스 상세도(동측동)



04

지역에 공간을 돌려준다

버드나무 브루어리는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지역의 명소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맥주 양조장이 되고자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 영국의 ‘펍Pub(Public house)’, 즉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를 지향한다. 전 대표는 버드나무 브루어리가 단순히 맥주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사랑방과 같은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강릉 사람들에게 이곳은 버드나무 브루어리이기도 하지만 강릉탁주이기도 하다. 낮 시간에는 거의 비어있는 양조장의 2층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이곳을 추억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전시회나 지역의 예술가와 춤공연, 미술전, 음악회 등을 열기도 한다. 때로는 수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터가 되기도 하고, 평일 낮에는 누구에게나 공간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다. 향후 정원공간을 확충하여 비어가든을 만들고자 계획 중이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지역주민에게 내어주는 2층공간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활동 지속

버드나무 브루어리는 맥주재료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버드나무 브루어리 뒤편에 위치한 베이커리인 ‘크래프트 하우스craft house’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맥주효모와 맥아로 빵을 만들거나 맥즙으로 조청을 만드는 등 발효를 주제로 한 실험들과 동네 사람들과의 바비큐 파티, 텃밭 분양, 몰트자루를 재활용한 우산커버 제작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베이커리이자 카페로 활용 중인 크래프트 하우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 바비큐 파티



맥주효모와 맥아로 만든 빵을 판매 중인 크래프트 하우스

4

강릉 초당커피정미소

Gangneung Chodang Coffee Mill

- 01 마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발견하다
- 02 공간이 담고 있는 이야기에 귀기울이다
- 03 공간을 보전·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다
- 04 초당을 담아내다

강릉시 초당동에 50년 넘게 자리잡고 있는 초당정미소는 잘 지어진 건축물이기보다 1960년대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가장 기능적이고 저렴한 방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자,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주민들의 사랑방이었다.

한편 마을의 기억을 품은 초당정미소는 동네마실방이자 카페로, 많은 추억을 남기는 ‘초당커피정미소’로 재탄생하였다.

강릉 초당커피정미소

Gangneung Chodang Coffee Mill

- 위치 강원 강릉시 초당원길 67
-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253㎡
- 건축면적 75.7㎡
- 연면적 75.7㎡
- 층수 지상1층
- 구조 목구조
- 용도 정미소 → 카페





01

마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발견하다

방아로 쌀을 찧다가 동력을 이용한 정미소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98년 일제의 양곡수탈이 심화되면서부터이다. 이후 마을마다 정미소가 생겨났고 1980년대에는 2만 개까지 그 수가 늘었다. 그 이후 기계화, 대형화되면서 대형 도정공장들과 미곡종합처리장이 등장했고 소규모 정미소들은 사라져갔다.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던 정미소는 방아로 쌀을 찧던 시대와 자동화된 기계로 쌀을 찧는 시대 사이에 놓인 추억의 공간이 되었다.*

강릉 초당동에 위치한 초당정미소는 1958년부터 50년 넘게 그 해 농사의 기쁨과 마을 사람들의 대소사를 함께 했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벼 등의 곡물 가공과정이 자동화·기계화 되면서 정미소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감소하여 2014년 폐업하게 되었다. 이후 초당정미소 소유주가 초당정미소를 창고로 임대하기 위해 내부의 구조물들을 철거하던 중 근처에서 순두부식당을 운영하던 김규태 대표가 이를 발견하였다. 김 대표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초당정미소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계약을 맺었다. 김규태 대표가 임차하기 전 이미 초당정미소의 일부 기둥과 가새가 철거되어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온전히 확인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농민신문(2017), “김봉아 기자의 농촌문화유산 답사기(18) 경북 영천 ‘가상정미소’”, 2017.01.06.



초당지역에서 50년 넘게 정미소로 운영되었던 초당정미소

임차 당시에 김규태 대표는 초당정미소를 두부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50년 넘게 정미소로 사용되는 동안 천장, 벽체 등에 쌓인 먼지를 몇 차례에 걸쳐 청소하면서, 위생상 식품을 만드는 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초당정미소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 고민하던 김규태 대표는 과거 초당정미소 한 칸에 빈 깡통을 간이테이블 삼아 동네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던 기억을 떠올리며, 초당정미소를 동네사람들을 위한 카페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현재 초당커피정미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머그컵과 건축물 외벽에는 당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두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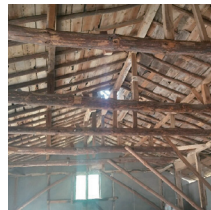


동네사람들의 마실방이었던 초당정미소



02

공간이 담고 있는 이야기에 귀기울이다



내부청소 후 초당정미소의 모습

초당정미소를 보전·활용하려는 김규태 대표의 노력이 알려지면서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던 예인 건축사사무소의 최이선 소장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최이선 소장은 김규태 대표에게 초당정미소의 기존 구조와 형태를 최대한 보전할 것을 권하였고, 그의 조언에 따라 김규태 대표는 초당정미소를 카페로 리모델링하는데 있어 기존 모습을 최대한 남기고자 노력하였다.

최이선 소장은 초당정미소가 정교하게 잘 지어진 건축물은 아니지만, 당시의 가장 기능적이고 저렴한 방법으로 그 시대의 사회상을 그대로 표출한 건축물이라고 설명한다. 초당정미소의 외벽은 미장으로 마감되어 있어 기둥이 보이지 않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재활용된 목재를 엮걸이 이음한 긴 기둥을 구조부재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붕을 받치고 있는 구조체는 한옥의 구조도 트러스 구조도 아닌 절충식 구조로, 대부분의 구조부재들은 재활용 목재가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보와 기둥 사이의 가새는 탈곡기가 상부에 축을 이루면서 돌아가는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03

공간을 보전·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다

초당정미소의 외관과 구조는 최대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3개월 간 6,000만 원의 비용으로 먼지제거를 위한 청소작업, 바닥공사, 출입문 교체, 전기 및 수도설비, 주방, 화장실 증축 공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내부 지붕구조체에서 먼지날림이 계속되어 구조부재 전체에 니스칠을 하였다.

또한 카페의 서비스공간 확장과 증축된 화장실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건축물 배면의 기둥바깥에 블록벽을 쌓고 서까래를 없어 내부공간을 넓혔다.



구조부재에 쌓인 먼지제거와 청소, 바닥공사, 구조부재 니스칠 후 초당정미소의 모습



시공 중인 바리스타존의 모습



초당정미소의 상량문 上樑文

초당정미소에는 쌀을 탈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먼지로 인해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한 환기용 지붕 갤러리가 2개소 있었다. 갤러리 1개소는 임대할 당시 소유주가 철거하였고, 다른 1개소는 그대로 보전하여 계절에 따라 개폐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카페를 운영하면서 구조체 사이에 벌어진 틈으로 인해 단열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에어캡으로 지붕과 벽 사이 틈을 막고 계절에 따라 개폐하였던 갤러리 1개소를 비닐로 막아 단열문제를 일부 해결하였다.



단열문제로 인해 지붕과 벽 사이의 틈을 에어캡으로 막아 사용



보존되어 있는 환기용 지붕 갤러리와 개구부



카페 내부 전경



기존 정미소로 사용되었던 흔적을 보여주는 서비스공간

© 김민환



카페 내부 전경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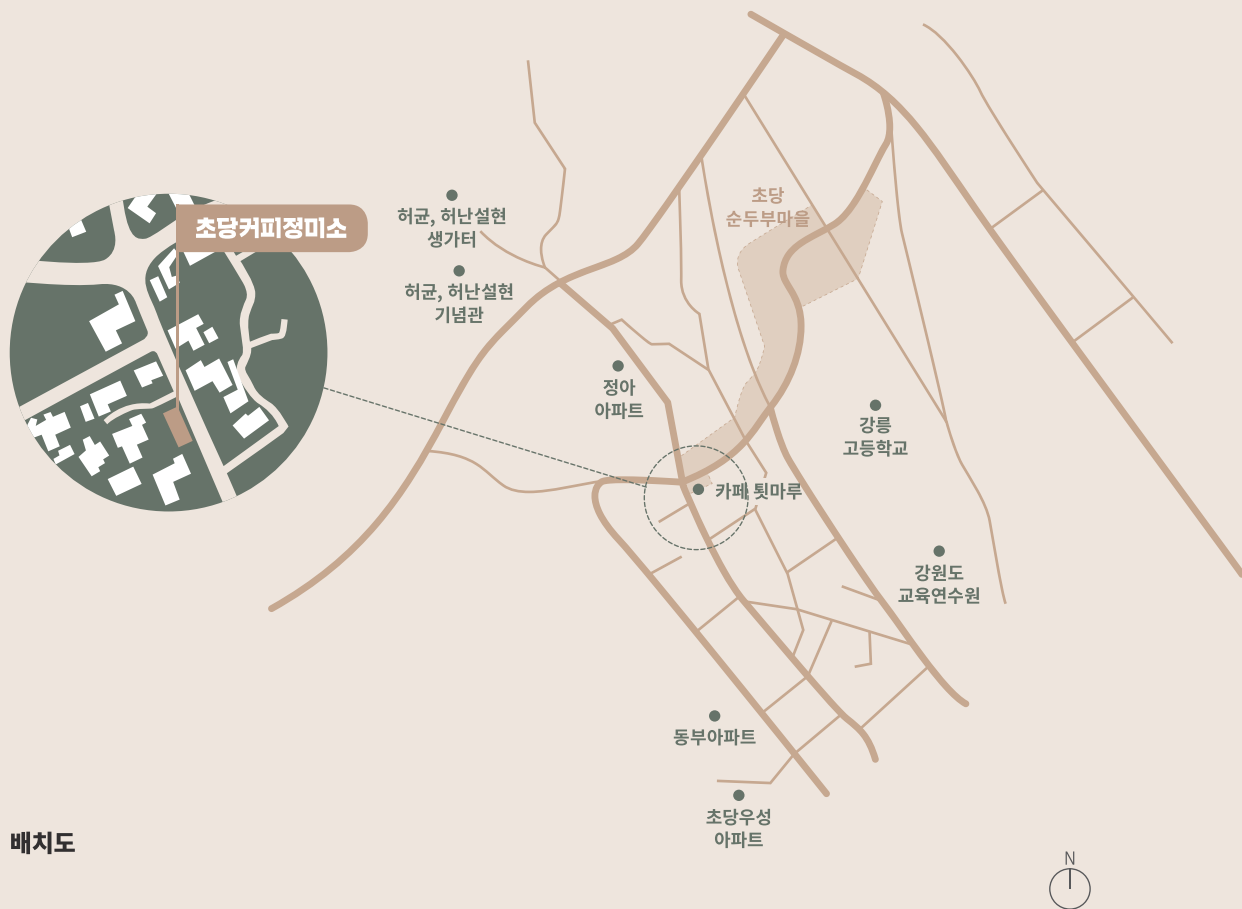
초당을 담아낸다

김규태 대표는 강릉에서도 유서 깊은 초당지역을 보전하고 주민들과 어울리고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전시하거나 공연할 수 있는 장場으로 초당커피정미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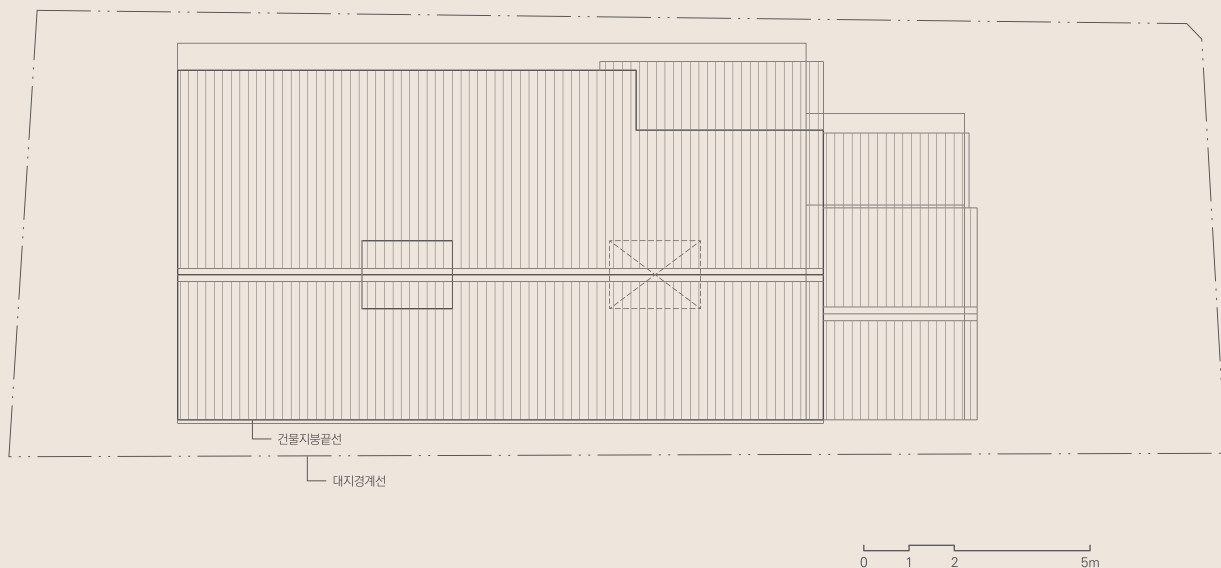
초당정미소를 처음 짓고 운영했던 분의 아들이자 전 강릉예총 지회장인 정태환 씨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교류공간으로 초당커피정미소를 활용하고 있다. 초당의 문화, 세시풍속, 시詩 등을 주제로 토크콘서트인 ‘초당이야기’, 관현악단 5중주, 기타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30~40명 정도가 참여하여 교류하고 있다.



초당커피정미소 주출입구에서 바라본 내부 전경



배치도



1층 평면도



주출입구 측 서비스공간에서 바라본 바리스타존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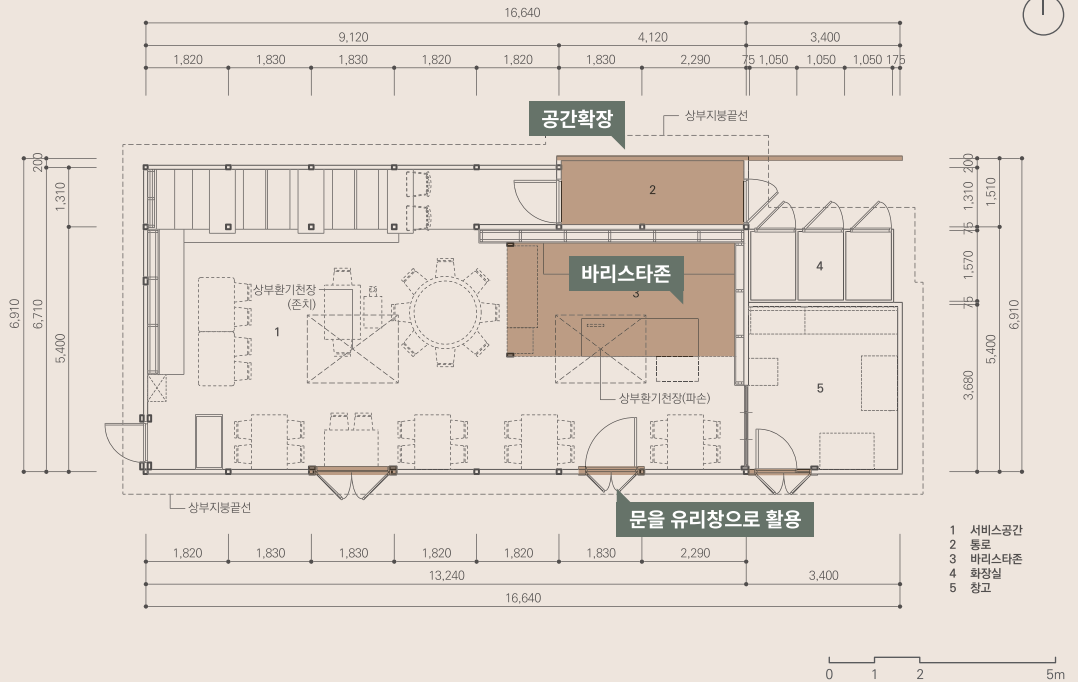


화장실로 연결되는 바리스타존 후면의 통로 입구



화장실에서 카페로 연결되는 통로 후면의 통로 입구

카페로
활용하기 위한
바리스타존 확충
및 공간확장



정면도



기존의 문을
유리창으로
활용



© 김규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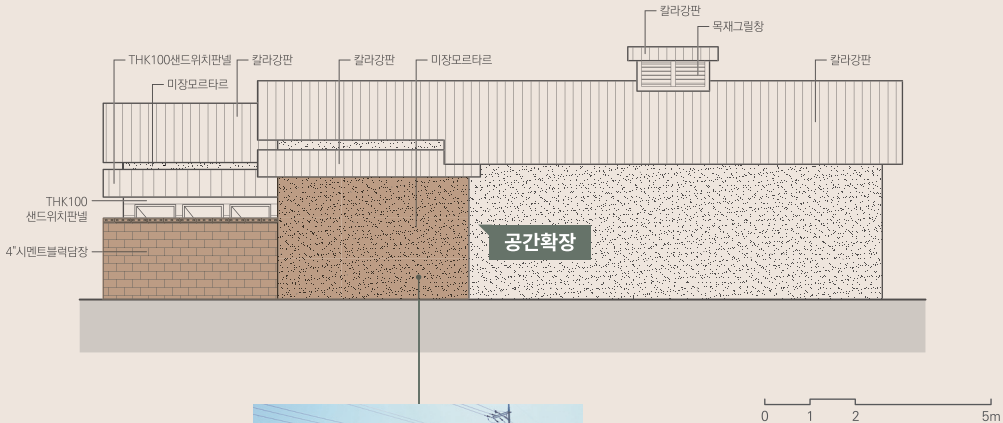


초당정미소에서 사용하던 문을 유리창으로 활용
하던 현판을 그대로 보전



© 윤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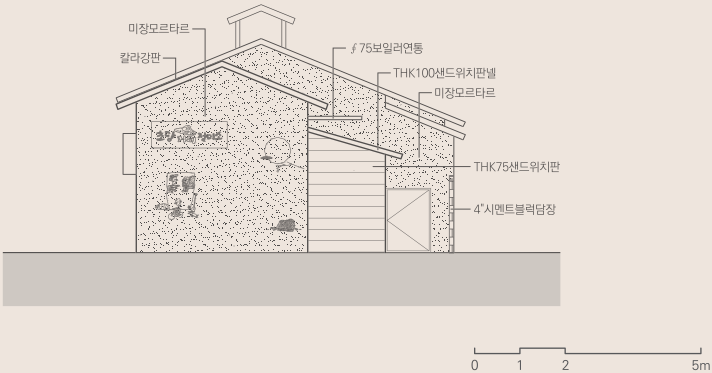
배면도



© 김규태

건축물 후면에 블록벽을 쌓고 서까래를 올려
화장실 통로 겸 창고로 공간확장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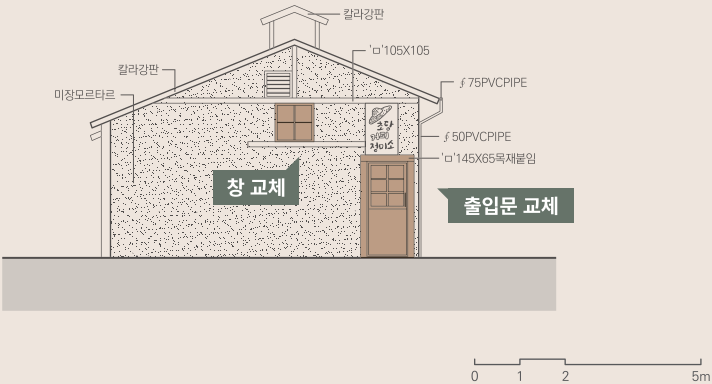


동네마실방 역할을 했던
옛 초당정미소의 모습을
외벽에 그림으로 표현



건축물 후면에 덧댄 통로 겸 창고와
샌드위치 판넬로 된 화장실

좌측면도



초당정미소 시절 사용했던
물건들이 있는 주출입구



공사 전 초당정미소 주출입구

출입문과
창 교체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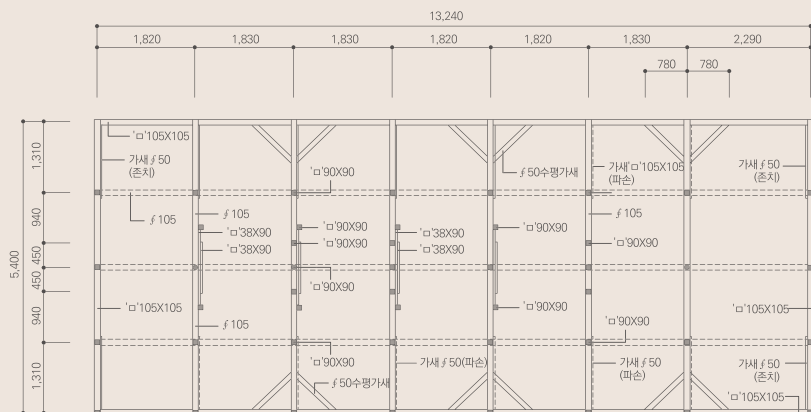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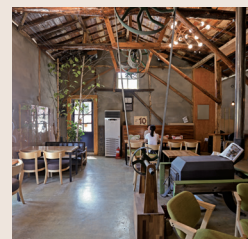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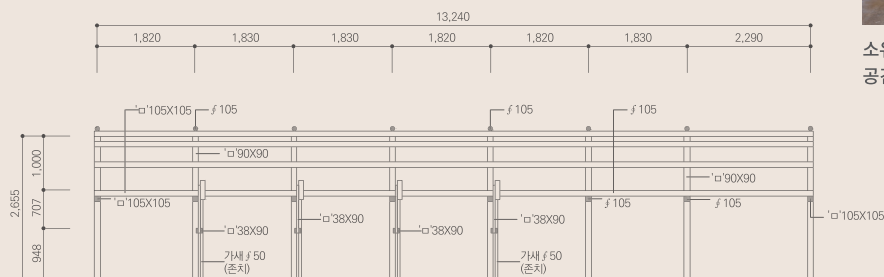
서비스공간의 모습

재활용 목재를 엇걸이 이음하여 구조부재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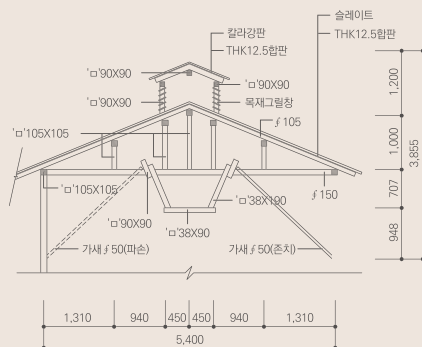
트러스트 상세도



보에서 기둥으로 가새를 대어
안정적인 구조로 구성



소유주가 초당정미소 임대 전
공간확보를 위해 한쪽 가새를 철거





초당정미소 시절 사용하던 구동바퀴와 피대를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



정미소였음을 보여주기 위해 서비스공간 내벽에 각목과 아크릴판으로 만든 공간에 벼씨로 채워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

초당정미소는,

초기 농업의 식량증산과 개발의 시대에 재활용 목재로 지어졌으며

재생의 시대에 다시 생활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자원을 적게 버리고 많은 추억을 남기는 초당커피정미소로

재탄생하였습니다.

-

2015.08.11.

에인건축사사무소 최이선 소장



가치를 잇는 건축자산 활용

공장·창고

발행일	2018년 12월 31일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펴낸이	박소현
엮은이	건축문화자산센터
지은이	유광흠, 이민경, 김민지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홈페이지	www.auri.re.kr
설계도면	인천아카이브카페빙고 (주)건축재생공방 남해돌창고프로젝트 (주)와이즈건축사사무소
실측도면	강릉버드나무브루어리 (주)마을제작소엔건축사사무소 강릉초당커피정미소 (주)마을제작소엔건축사사무소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02-518-1571) www.credada.com

ISBN

979-11-5659-202-0

979-11-5659-204-4 (세트)

비매품

© 201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문화자산센터

*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도면은 저작권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 어느 어떠한 형태로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aur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문화자산센터

Architectural Culture Asset Center

비매품



9 791156 592020

ISBN 979-11-5659-202-0

ISBN 979-11-5659-204-4 (세트)